백두산

11호 - 주체91(2002)년 4월 25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조선인민군이 걸어 온 불패의 로정

4월 25일은 조선인민군창건절이다.

70년전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조선의 첫 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항일전쟁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그리고 령활무쌍하고 림기응변하는 독창적인 유격전법으로 일제의 100만 관동군과 맞서 15성상 피어린 싸움을 벌려 조국광복(1945)을 이룩하시였다. 이 전통을 계승하여 광복후 짧은 기간에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은 미제가 일으킨 3년간의 전쟁(1950－1953)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을 괴수로 하는 16개 나라 군대와 남조선괴뢰군의 침공을 물리치고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깨드려 버렸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동안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1968), 대형간첩비행기 ≪EC－121≫사건(1969), 판문점사건(1976), 직승기사건(1994) 등을 비롯한 끊임 없는 미제의 군사적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 버렸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조선인민군은 무적강군의 위용을 떨쳐 가고 있다.

군인대중이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자라나고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갖춘 조선인민군은 그 풍모에 있어서나 군사적위력에 있어서 그 어떤 군대도 견줄수 없는 필승불패의 대오로 강화발전되였다.

2 조선인미군창군 70돌
- 선군정치
- 백두산3대장군 울리신 총성
- 우리 공화국은 금성철벽
- 세계 각국에서 건군 70돐을 축하

4 종합
- 미국로동자세계당대표단 ≪한민전≫평양대표부 방문
- 통일주제가요들
- 일본총리의 야스구니진쟈 참배를 규탄
- 미국은 대세의 흐름에 발을 맞추라
- 워싱턴포스트, 부시 대북강경정책 비판

5 노작
- 조선노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 (6)

7 세기와 더불어
- 7장 1절 보금자리 (2)

9 공동논설
-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다 (2)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라이스는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
- 이회창은 썩은 대쪽
- 이회창, 한나라당반대투쟁에 나서자
- 구시대인물 이회창 정치판에서 축출

13 투쟁보도
- ≪Oh! No USA Festival≫
- 군산미군기지 소음피해 소송
- 국회, F15-K 선정 전면지지
- 지난 1년간 23개국서 反IMF 시위
- 노동권/생활권 쟁취 1000인 선언

15 운동강좌
-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

조선인민군은 혁명의 주력군

조선인민군은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혁명적풍모와 전투적위력을 완벽하게 갖추어 주신 위대한 **김정일**최고사령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결실이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주체84(1995)년 새해 첫날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800여개단위의 최전연초소들과 군부대들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비범한 군사적예지로 군대의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밝혀 주시고 군인들에게 무적필승의 신념을 안겨 주시였으며 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보살피시였다.

이 사랑은 인민군장병들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불러 일으키고 그들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만들었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인민군대를 조국보위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에서도 본보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안변청년발전소, 정방산과 구월산 유원지를 비롯하여 인민군장병들은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시기에만도 나라의 도처에 수많은 창조물들을 일떠세웠다.

인민군군인들은 경제건설의 주공부문에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참으로 조선에서 인민군대는 사회주의위업의 견결한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만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4월 23일

선군정치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는 선군정치로 백승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는 희세의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그분의 선군정치의 위력과 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있으며 그럴수록 선군정치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가 높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치는 그 지침이 되고 기초가 될 수 있는 사상과 이념의 창시와 발전을 전제로 하며 무릇 정치는 정사를 펴는 정치가의 정치이념, 정치철학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영명하신 **김정일**영수의 선군정치의 본의와 특징,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려면 그분께서 독창적으로 천명하신 총대중시사상과 선군영도철학에 대한 고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분께서는 일찌기 총대위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도 있다는 총대중시사상을 천명하셨으며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그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군사중시, 국방중시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항구적인 전략노선으로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영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언명하시였다.

≪제국주의의 포위 속에서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을 받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강력한 군대가 없이는 인민도 없고 사회주의국가도 당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가 곧 인민이고 국가이고 당이라는 것, 이것이 **김정일**영수의 혁명철학이며 선군영도철학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영수의 총대중시사상과 군사중시, 국방중시의 전략적 노선, 선군영도철학에는 제국주의의 포위 속에서 거듭되는 침략위협을 받으며 단신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이북 뿐아니라 지구촌의 진보적 인류가 모두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권을 지키고 민족자주위업을 완성하는 데서 나서는 초미의 근본문제에 대한 가장 명석한 과학적 해답이 주어져 있다.

오늘 지구촌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힘에 기초한 오만무례한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약소국가와 민족들의 자주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당하는 사태가 끊기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라크와 유고사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미국을 괴수로 하는 서방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추호의 기대나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민중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면 군사중시, 국방중시를 국사중의 최대국사로, 일관한 전략노선으로 내세우고 막강한 군사력을 키우고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침략을 물리치고 자주권을 지키는 힘도, 전쟁을 이기고 평화를 지키는 힘도, 민족자주위업을 완수하고 강성부흥을 이룩하는 담보도 군사를 중시하고 군력을 주력으로 하는 국방력강화에 있다.

총대중시, 군사중시 사상과 선군영도철학에 기초한 **김정일**영수의 선군정치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 민중의 행복한 삶을 참답게 보장하는 애국, 애족의 정치이다. 그것은 또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철저히 짓부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애호정치이다. 더욱이 그것은 내우외환의 역경을 모두 전화위복으로 만들고 민족자주위업의 성공적 수행과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는 인류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만능의 위대한 정치이다.

오늘 우리 겨레와 세계 진보적 민중들이 **김정일**영수의 선군정치의 위대성을 높이 칭송하면서 거기서 민족과 인류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필승의 신념을 굳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사실 오늘 동서방의 어느 대소국가를 막론하고 미국과의 정면대결에서 승산을 본 나라, 미국으로 하여금 어쩌지 못하게 하고 결국 굽어들게 하는 나라는 유독 이북 뿐이다. 힘에는 힘으로, 오만무례한 침략에는 무자비한 징벌로 대답하는 것이 이북의 기질이며 배짱이다. 세계가 탄복하는 이북의 이런 기상과 기질, 배짱이 위대한 **김정일**영수의 선군정치, 선군영도의 결과로 이북이 명실상부한 군사강국으로 부상된 데서 비롯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북의 현실은 자주권수호의 최선의 방책도, 평화수호의 유일한 길도, 자주위업의 완성과 민족번영의 활로도 군사중시, 국방중시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선군정치로 군사적 힘부터 키우며 군력을 위주로 나라의 전반적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김수학 - 구국전선
제423호 (주체89년 11월 1일)

백두산3대장군 울리신 총성

항일의 날 보천보 가림천가에
김일성주석님 울리신 총성
장군님의 선군길에 높이 울리네
민족의 자주정신 새기여 주며
이남민중 가슴에도 울리여 오네
아 백두산3대장군 울리신 총성
태양민족 영원한 승리 축포성

광복의 기쁨 넘친 삼일포에서
김정숙녀장군 울리신 총성
장군님의 선군길에 높이 울리네
나라사랑 겨레사랑 안기여 주며
한나산 끝까지 울리여 오네
아 백두산3대장군 울리신 총성
태양민족 영원한 승리 축포성

필승의 기상 넘친 령군봉에서
김정일장군님 울리신 총성
선군정치 메아리로 높이 울리네
통일된 강성대국 축포성 되여
하나된 삼천리에 울려 퍼지네
아 백두산3대장군 울리신 총성
태양민족 영원한 승리 축포성

위대한 령장을 국방의 수위에 모신 우리 공화국은 금성철벽

4월 9일자 ≪로동신문≫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8돐에 즈음하여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8년전 그이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고 지적하였다.

우리의 국가기관체계에서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능이 높아 진데 언급하면서 사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력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여 사회주의조국의 국가체계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우리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대표하는 성스러운 중책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고 우리 식의 국가기구체계가 새롭게 정비됨으로써 국방력을 중추로 하여 나라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해 나가는 새형의 사회주의국가정치가 탄생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선군정치는 하나의 체계화된 정치방식으로 완성되게 되였다.

사설은 **김정일**령도자께서 국방위주의 정치, 불패의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수호전을 이끄시는 길에서 우리 인민군대를 그 어떤 강적도 일격에 타승할수 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사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우리의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을 힘 차게 다그쳐 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에 언급하였다.

사설은 자위적국방력의 핵심력량인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다지는 사업을 계속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대결상태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사업은 한시도 늦출수 없는 중대사이라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주체89년 4월 9일

세계 각국에서 영웅적 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축하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 야씨르 아라파트가 꽃바구니를 보내여 왔다. 꽃바구니를 23일 조선주재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 샤히르 무함마드 아브둘라흐가 백남순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네팔조선친선의원단에서 선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네팔조선친선의원단에서 선물을 보내여 왔다.

선물을 22일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네팔왕국 국회대표단 성원인 네팔조선친선의원단 조정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최태복의장에게 전달하였다.

조선주재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조선주재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23일 외교단 단장인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 샤히르 무함마드 아브둘라흐가 백남순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조선주재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조선주재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23일 무관단 단장인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무관 엄강풍이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김일철차수에게 전달하였다.

조선주재 무관단 조선인민군 구분대 방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조선주재 무관단이 22일 조선인민군 최영수소속 구분대를 방문하였다.

무관단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몸소 이곳 구분대를 찾으시여 ≪일당백≫의 구호를 제시하시고 군인들을 펼펼 나는 싸움군으로 키워 주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지들을 돌아 보았다.

무관단 단장인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무관 엄강풍은 방문을 마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이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바란다고 말하였다.

화교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원호물자 기증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조선화교련합회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평양시내 화교들이 22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원호물자를 기증하였다.

화교들은 조선에서 활짝 꽃 펴 나고 있는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적극 따라배워 앞으로도 조선인민군대에 대한 원호를 잘해 나감으로써 중조친선을 강화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조선인민군창건 70돐과 평양선언발표 10돐에 즈음해 모스크바에서 집회 진행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과 평양선언발표 10돐에 즈음하여 18일 모스크바에서 집회가 진행되였다.

로씨야련방공산당 모스크바시위원회 비서 뿌낀은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것은 그이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김정일**동지는 세계사회주의운동의 탁월한 수령이시라고 하면서 10년전 평양선언이 발표된것은 국제혁명위업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충실성과 선구자적지위를 보여 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시당검열위원회 위원장 스뱌또쉔꼬는 연설에서 로씨야공산당원들은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선의 경험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23일

미국로동자 세계당대표단 ≪한민전≫평양대표부 방문

미국로동자세계당대표단이 22일 ≪한민전≫평양대표부를 방문하였다.

박광기대표와 대표부성원들이 당전국위원회 비서국 성원 데이르드르 그리스월드 스타프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성원들을 따뜻이 맞이하고 그들과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박광기는 미국은 무분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그만두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한민전≫의 활동정형을 통보하였다.

대표단 단장은 미국로동자세계당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한민전≫과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말하였다.

그는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한민전≫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23일

통일주제가요들

최근 조선에서 가요 ≪우리는 하나≫를 창작완성하였다.

가요는 나오자마자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급속히 파급되고 있다.

가요는 피줄도 언어도 문화도 력사도 하나인 조선민족은 둘로 갈라 져 절대로 살수 없다는것을 심오한 통일철학이 담긴 가사와 박력 있는 선률로 생동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외세에 의하여 근 60년간이나 강요되고 있는 국토분단의 나날 조선에서는 통일주제가요들이 수많이 창작되였다.

그중에는 ≪조선은 하나다≫, ≪통일렬차 달린다≫ 등도 있다.

이 가요들은 사상예술적내용과 형상의 완벽성으로 하여 북과 남, 해외의 통일행사 모임들에서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뜨거운 동포애와 통일의 밝은 앞날에 대한 축복이 담긴 ≪반갑습니다≫, ≪통일돈돌라리≫, ≪통일무지개≫ 등도 사람들속에서 널리 애창되고 있는 가요들이다.

조선중앙통신 4월 23일

일본총리의 야스구니진쟈 참배를 규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 담화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지난 21일 일본의 현직총리가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한 것과 관련하여 23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지난 날 침략전쟁에 나섰다가 죽은 특급전범자들의 망령들이 도사리고 있는 야스구니진쟈는 일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때문에 전후 력대 일본당국자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행위는 침략의 과거와 군국화를 합리화하려는 위험한 책동으로 간주되여 주변나라들을 비롯한 광범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받아 왔다.

지난해 8월에도 일본당국자가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여 아시아나라들의 비발치는 항의와 규탄을 야기시킨바 있다.

일본총리의 이번 참배는 일본의 군국화를 반대하는 아시아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공공연한 정면도전으로 되며 특히 지금 일본에서 벌어 지고 있는 군국주의적인 유사시관련법안채택 놀음과 때를 같이 한것으로 하여 더욱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직 일본총리가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는것은 시기와 형식이 어떠하든 일본정부가 일본의 과거범죄를 정당화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될수 없다.

우리는 일본의 고위당국자들과 정치인들이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는것과 같은 무모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이 지난 날 침략과 해외팽창으로 망한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군국주의의 길로 나간다면 자신의 장래를 스스로 망치는 비참한 결과만을 가져 오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4월 23일

미국은 대세의 흐름에 발을 맞추라

≪로동신문≫ 22일부는 얼마전에 미국이 남조선에 ≪F－15K≫전투기를 팔아 먹으려고 남조선군부에 암암리에 압력을 가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것을 평하면서 그 목적은 그들에게 신형무기들을 주어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실현의 돌격대로 내세우고 미군수독점체들을 경영위기에서 벗어 나도록 하려는데 있다고 폭로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남을 희생시켜 제 리속을 챙기는것은 변할수 없는 미국의 악습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남사이에 중단되였던 대화가 재개되고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고 있는것은 미국이 실시하여 온 대조선적대시정책, 일방주의, 강권정치가 파산되고 있다는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정세를 절대로 좌우지할수 없다.

미국이 이제부터라도 부당한 대조선정책을 달리 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더욱 불리한 처지에 빠지게 할수 있다. 세계면전에서 미국의 호전성, 침략적정체는 더욱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대세의 흐름에 발을 맞추어야 한다. 미국은 더는 조선의 평화와 통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4월 22일

워싱턴포스트, 부시 대북강경정책 비판

잇따른 지도력 부재의 연장선상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 중 하나인 워싱턴포스트가 대북정책을 포함해 부시정부의 외교정책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다. 신문은 지난 21일 ≪부시정책, 위기로 긴장 초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2면에 걸쳐 게재하였다.

신문은 부시정부의 외교정책이 중동사태, 베네수엘라사태, 아프간정책, 그리고 대북정책 등에서 우유부단한 지도력과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인해 관련국들의 비난은 물론 민주당으로부터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23일 기사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부시정부의 지도력 부족, 비전 결여를 질타했다.

부시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우익이념과 평화문제에 대한 자기 탐닉적인 개입을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최근 남한의 최성홍 외무장관이 미국을 방문하여 이북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미 대화를 바라고 현재 그런 기회라는 점을 상기하였으나, 부시정부측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을 ≪큰 막대기정책(big－stick foreign policy)≫의 이익과 한계를 실험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연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문은 부시정부가 대답할 물음으로 이북의 새로운 분위기를 어떻게 포착하는가 라고 지적하고, 큰 막대기정책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정책 정당성을 얼마나 자주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그 내용이라고 했다.

신문은 미국의 어떤 정부도 대북정책에서 올바른 목표 선정과 (체제붕괴가 목표가 될 수 없다면) 이북에 많은 이득을 주지 않고 두 번째 전략을 추구하는 것, 두 가지라고 지적했다.

우익이념과 지도력 한계 사이의 딜레마

신문은 부시정부가 이 두 가지 문제가 갖는 딜레마를 현 대북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지금과 같은 계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시정부가 이 점을 생각할 것이라는 최성홍 외무장관의 말로 끝을 맺었다.

연두교서에서 반테러전쟁을 올해 제1의 정책으로 내세운 부시 대통령이 그 연장선상에 놓고 있는 대북 강경정책을 당장 수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세계 곳곳에서 부시정부의 외교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적인 비판에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시정부의 강경 혹은 무시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점은 △ 대북정책에 관해 한－미 공조에 일정한 틈이 있고 △ 이북이 현 미국의 태도를 우회할 수 있는 다른 길(러시아, 중국과의 협력관계 확대 등)을 갖고 있다는 두 가지 이유로 더 깊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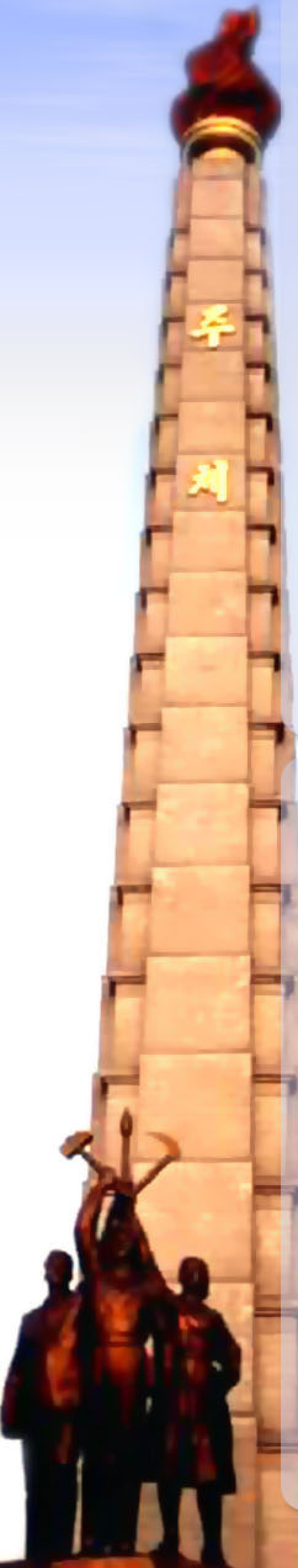
부시 대통령은 또 환경, 에너지 정책이 전.현직 석유, 화학 회사 간부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는 엘 고어의 정치공세에도 직면해 있다. 이는 부시정부의 대북정책도 MD추진 등을 명분으로 한 군수업체의 로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을 제기해 준다.

부시정부의 대외정책은 근본적으로 보수적 이념과 현실 지도력의 빈곤 사이의 딜레마에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듯한 형국이다.

통일뉴스 2002/04/24

조선노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 (6)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노작 - 주체75(1986)년



4.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 (2)

우리 당은 근로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그에 대한 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하였습니다. 근로단체는 당에 의하여 조직되고 움직이는 정치조직인 것만큼 당적 지도를 떠나서는 대중적 정치조직으로서 활동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단체는 오직 당의 지도 밑에서만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로단체에 대한 당적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단체 조직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조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을 옹호, 보위하는 것은 근로단체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근로단체들의 조직 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당의 노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단체에 대한 당적 지도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근로단체 조직들이 자기의 임무를 옳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단체들의 기본임무는 동맹원들을 교양하여 당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 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로단체 조직들이 동맹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을 강화하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동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근로단체들이 자기의 임무를 옳게 수행하도록 하려면 자립성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근로단체의 자립성을 높이는 것은 근로단체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의 기본요구입니다. 근로단체들이 자립성을 가져야 자기 조직의 사명과 특성에 맞게 동맹원들과의 사업을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근로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강령과 그 수행방도를 옳게 제시해 주었으며 당조직들이 근로단체조직들에 사업을 대담하게 맡기고 적극 도와주며 사업 조건을 잘 보장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외곽단체들이 직업동맹, 여성동맹,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조직들은 당의 믿음직한 인전대로 강화, 발전되었으며 당의 지도 밑에 자기의 본래 사업을 능동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모든 근로단체들이 자기의 사명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우리 당의 후비대이며 주체위업의 계승자인 청소년들을 사회주의건설,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일군들로 튼튼히 키우며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통일전선사업을 잘 하는 것입니다. 계급 사회에는 사회경제적 처지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여러 계급과 계층이 있게 되며 따라서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여러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노동계급의 당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여러 정당들 사회단체들과 통일전선을 수립하는 것은 당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 강화하며 반혁명세력을 고립 약화시키고 강력한 혁명역량을 꾸리는데서 전략적 의의를 가집니다. 해방 직후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당, 청우당과 같은 민주주의적 정당들과, 다기한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제각기 대표하는 여러 사회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통일전선을 실현하는 것은 당시 우리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 단체들과 연합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에 토대하여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 것을 당의 기본임무와 정치노선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정권을 세우고 민주개혁을 실시하는데서 주동적으로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공동행동을 벌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1946년 7월 상설적인 통일전선 조직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북반부에서는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연합의 형태로 통일전선이 빛나게 실현되었으며 모든 애국역량이 우리 당을 중심으로 굳게 단합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나라의 정세가 변화됨에 따라 그에 맞게 통일전선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망국적인 단독정부를 조작하고 나라의 분열을 영구화하려고 하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남북 조선의 모든 민주역량과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열 책동을 반대하는 거족적 투쟁을 벌였습니다. 한때 공산주의자를 원쑤처럼 여기던 김구 같은 사람도 우리 당의 넓은 포용력과 정당한 통일전선 정책에 탄복되어 우리와 손잡고 민족적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나섰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열책동을 반대하는 거족적 투쟁속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이 창건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조국을 사랑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조선의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하나의 민주주의역량으로 총집결하기 위하여 1946년 6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였습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는 이승만의 직계정당을 제외한 남북조선의 70여개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망라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통일전선을 강화하는데서 일관되게 독자성을 유지하고 주동적 역할을 하는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노동계급의 당이 다른 정당, 사회단체들과 연합하여 통일전선을 실현한다고 하여 자기의 독자성을 잃고 원칙적인 입장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우리 당은 그 어떠한 처지에서도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였으며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정치적 노선을 통일전선 안의 모든 성원들에게 해설, 선전하는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다른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각 정당, 사회단체들이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와같이 하여 통일전선 안에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진실로 우리 당을 믿고 따라 오게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또한 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상층통일전선을 실현하는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통일전선은 순조롭게 실현되었습니다. 우리 당이 통일전선사업에서 얻은 경험은 남북조선의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이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투쟁을 벌이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우리는 지난날 남북조선의 모든 민주역량들이 단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창건한 역사적 경험을 살려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남북조선의 모든 민주적 정당, 사회단체, 인민들, 해외동포들과 강력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합니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를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선봉대이며 군중은 우리 당의 사회적 기반입니다.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잘 하여야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당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에 따라 극소수의 반동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광범한 군중을 최대한으로 쟁취하기 위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계급별, 계층별 특성에 맞게 강화하여 왔습니다. 우리 당은 노동계급과의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노동계급은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계급이며 우리 혁명의 영도계급입니다. 노동계급은 높은 혁명성과 조직성, 규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노동계급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우리 당이 공고한 계급적 토대위에서 강화, 발전될 수 있으며 온 사회를 노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노동계급 대열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노동계급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공장, 기업소,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노동계급 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적 단련을 강화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 규율성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였으며 특히 새 세대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을 높이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노동계급이 우리 당을 떠받들고 나가는 기둥이 되고 초석이 되게 하였으며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노동계급은 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앞장에 서서 힘차게 나가고 있으며 조선혁명의 영도계급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농촌에 깊이 뿌리박고 농민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농민은 노동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이며 우리 혁명대오의 기본부대의 하나입니다. 농민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당의 농촌 진지를 공고히 하고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농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매 시기마다 농민무제 해결에 깊은

→

우리가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인민의 창조적 투쟁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우리는 혁명적 군중노선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합니다.

관심을 돌렸으며 정확한 농촌계급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농민들을 사회주의 농업근로자로 개조한 다음 농민들의 사상의식 수준과 문화기술 수준을 높여 그들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다그치는데 기본을 두고 농민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각급 당조직들이 농촌의 구체적 특성과 농민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농민들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함으로써 농민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농촌 진지는 튼튼히 꾸려져 있으며 농민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서 당의 사회주의농촌 건설 방침을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근로인텔리들과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근로인텔리는 노동자, 농민과 함께 우리 당의 구성부분이며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역량입니다. 인텔리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치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온 사회의 인텔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이 높은 단계로 심화, 발전되고 사회발전에서 과학과 기술의 역할이 커질수록 인텔리들과 사업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인텔리들과의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낡은 사회에 복무한 오랜 인텔리들의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오랜 인텔리들은 거의 다 부유한 가정의 출신으로서 지난날 착취사회에 복무하기도 하였으나 그들은 식민지 나라의 인텔리로서 멸시와 차별 대우를 받아옴으로써 반제국주의 사상과 민주적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오랜 인텔리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을 당과 노동계급을 위해 복무하는 인텔리로 개조할 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꾸준히 교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오래 전에 오랜 인텔리들이 사회주의적으로 교양개조되였으며 인텔리의 이중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였습니다. 오랜 인텔리들이 사회주의적으로 교양개조되고 새로운 근로인민 출신의 인텔리들이 많이 자라남에 따라 우리 당은 인텔리들을 혁명화하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인텔리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켰으며 인텔리들이 늘 현실에 들어가 노동계급의 혁명적 영향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텔리들이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텔리들은 사회주의적 근로인텔리로서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신성 있게 전진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힘과 재능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 정치생활경력과 가정, 주위환경이 복잡한 군중을 우리 당의 열렬한 지지자로, 혁명의 적극분자로 만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혁명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국민들의 사회정치적 구성은 매우 복잡하여졌습니다. 사회, 정치생활경력과 가정환경이 복잡한 군중의 대부분은 기본계급 출신으로서 지나날 계급의식이 낮았던 탓으로 하여 적들에게 일시적으로 이용당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혁명을 의식적으로 반대하는 적대세력이 아니며 우리 당이 쟁취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복잡한 군중을 당과 혁명의 편에 쟁취하는 것은 당의 대중적 기반을 공고히 하며 혁명역량을 확대하고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사회, 정치생활경력과 가정, 주위환경이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은 일관하게 본인의 현재 사상과 행동을 기본으로 하여 매 사람들을 평가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당과 혁명의 편에 쟁취하는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성분이란 사상의 구성성분이며 그것은 사회적 환경과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달라지는데 따라 변합니다. 성분이 복잡한 사람이라도 사회가 발전하고 혁명적 교양을 받으면 좋은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람들을 가정, 주위환경과 경력만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상상태를 기본으로 하여 평가하였으며 복잡한 군중을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적극적으로 교양하였습니다. 당을 믿고 따르며 사업에서 열성을 내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사회, 정치생활에서 차별하지 않았으며 혁명과업을 대담하게 맡기고 그들의 사업 성과와 공로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주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라는 높은 자부심과 자기 전도에 대한 낙관을 가지고 활기있게 일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몸 바쳐 나서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적극적인 교양을 통하여 복잡한 군중을 당과 혁명의 편에 쟁취하였으며 온 사회를 명랑하고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우리 당의 경험은 사람들을 대담하게 믿고 달라붙어 교양한다면 의식적인 반동분자를 빼놓고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교양개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른 오늘에도 의연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임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철저히 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야 합니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당활동에서 군중노선을 관철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군중노선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 시기부터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인민대중의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혁명준칙으로 삼고 군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왔으며 주권을 잡은 다음에도 군중노선을 관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군중노선을 관철하려면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여야 합니다. 당이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존중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당과 대중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혁명의 군중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당과 대중과의 연계는 대중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당의 인민적인 정책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당이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인민들의 의사에 배치되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대중의 신뢰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대중과의 연계를 실현할 수 없고 광범한 군중을 혁명의 편에 쟁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내세우고 언제나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였으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왔습니다.

우리 당은 무슨 결정을 하나 채택하여도 먼저 인민들의 요구를 고려하였으며 어떤 공장을 하나 세워도 먼저 인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 직후 나라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웠지만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성진제강소의 원철로를 폭파하여 버렸습니다. 우리 당이 실시한 모든 정책은 다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에 전적으로 자기 운명을 의탁하고 있으며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당은 인민을 위하여 인민은 당을 믿고 따르는 여기에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으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 담보가 있습니다.

군중노선을 관철하려면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인다는 것은 대중의 창조적 힘과 혁명적 열의를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 힘과 지혜를 옳게 발동하여야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창조적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을 동원하여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의 역사적 과업을 짧은 기간 안에 빛나게 실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련도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이겨냈고 전후 반당종파분자들의 발악적 공격도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인민의 창조적 투쟁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우리는 혁명적 군중노선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에 맞게 노선과 정책을 실시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의 창조적 지혜와 혁명적 열의를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내일 계속)

3권 제7장

인민의 세상

1. 보금자리
2.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3. 소베트냐, 인민혁명정부냐?
4. 국제당파견원
5. 백마에 대한 추억

1. 보금자리 (2)

이런 폐단을 없애려고 어떤 고장에서는 애기들에게 아편을 먹이기도 하였다. 아편을 먹이면 아이들이 잠에 취해서 울지 못하였다. 어떤 여성들은 거듭되는 적의 ≪토벌≫에 성화를 먹다못해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남에게 주기까지 하였다. 유격구의 혁명군중과 전우들을 위하여, 목숨보다 더 귀중한 항일의 위업을 위하여 이 나라 여인들은 이처럼 비싼 대가를 치뤘다.

부르주아 인도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의 모성애를 두고 비난할 것이다. 자식들의 운명에 그처럼 무심한 여자들이 어디 있고 자식들의 생명 앞에서 그토록 무책임한 모성들이 어디 있는가고.

그러나 그 애어린 육체들에서 생명의 불꽃을 꺼버린 책임을 이 나라 여인들에게 물어서는 안될 것이다. 자기 자식의 햇솜같은 육체를 가랑잎으로 묻을 때 그리고 남의 집 대문 앞에 사랑하는 자식을 떼두고 갈 때 유격구 여인들의 눈에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들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패였는가를 안다면 간도 땅에 살인백정의 무리들을 파견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저주와 증오를 퍼붓게 될 것이다.

이 나라 여인들의 모성애에 참을 수 없는 시련을 강요한 죄악은 전적으로 일본군국주의 살인마들에 의하여 빚어진 것이였다. 일본이 과거를 청산하자면 반드시 이런 죄악을 반성해보아야 한다. 자지가 저지른 범죄의 자취를 돌아보고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물론 유쾌한 일로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반성이 아무리 쓰고 굴욕적인 것이라 하여도 남의 집 울바자 밑에 자기의 살붙이를 떼두고 가든가 어린 자식의 목구멍에 아편 덩이를 밀어 넣을 때에 우리 어머니들을 누이들이 느끼던 그런 고통보다야 훨씬 가볍지 않겠는가. 일본 지배층이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그 무슨 증거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지난날 일본군에 의해 참살된 수백만 조선 사람들에 대한 가증스러운 모독으로 될 것이다.

혁명군중 앞에는 왜놈들의 요구대로 도시로 내려가는가, 아니면 그 요구를 거역하고 더 깊은 산중에 들어가 생계를 유지하며 투쟁을 계속하는가 하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다.

고향의 문전옥답을 버리고 간도 땅에 온 조선 사람들치고 왜군이 도사리고 있는 시가지에 가겠다고 응해나설 사람이 과연 몇이겠는가.

간도 주민의 대부분은 일제의 식민지적 수탈로 인하여 경제적 지반을 잃고 율도국과 같은 이상형을 꿈꾸며 살길을 찾아 남부여대의 길을 떠난 영세농민들이였다.

그들은 관헌들과 토착지주들에게 등껍질을 벗기우면서도 로야령, 할바령 산줄기들의 비탈과 골짜기들에서 억척스럽게 돌을 추어내고 나무뿌리를 뽑아냈다. 화전농사는 고되고 가난은 변함없었으나 왜놈의 등쌀을 모면할 수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해하였다. 그런데 그처럼 흉악무도한 왜군을 따라 도시로 내려가라고 하니 어느 누가 피땀으로 걸구어온 자기 집 터전에서 선뜻 발길을 떼겠는가. 이것은 대살륙의 참변을 겪은 왕청골 안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대시련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토벌군≫의 행악질에 겁을 먹은 일부 주민들은 한집, 두집 도시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 세상을 열렬히 동경하고 갈망하는 절대다수의 군중은 적들의 공갈을 무릅쓰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다. 어젯날까지 한동네에서 혁명을 위해 뜻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면서 동고동락의 길을 걷던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각각 산과 도시로 흩어져 가게 되었다.

그 때 산중에 남은 사람들은 현성(백초구)로부터 100리나 떨어진 소왕청과 대왕청의 대수림 지대로 깊숙이 이동하였다. 이치백 일가가 중경리에서 마촌으로 옮겨간 것도 이 무렵이었다. 공산당 왕청현위를 비롯한 현급 기관들은 소왕청에 본거지를 정하였다. 연길현 세린하와 태평구, 왕우구, 북동 등지로 장소를 바꿔가며 활동하던 동만특위도 1933년 봄에는 소왕청골 안으로 들어와 리수구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소왕청은 간도혁명의 중심지가 되고 수도로 되었다. 우리와 중국당, 우리 혁명과 중국혁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게 되었다. 왕청 유격근거지는 요영구를 포괄하는 1구와 마촌, 십리평을 포괄하는 2구를 비롯하여 5개의 혁명조직구로 이루어져있었다. 그 당시의 왕청유격대 역량은 3개 중대였는데 그 대표적인 지휘관들은 이광, 양성룡, 김철, 장룡산, 최춘국, 이응만 등이었다.

이것이 내가 왕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대체적인 예비지식이었다. 나에게 이런 예비지식을 넣어준 사람은 왕청유격대 창건자의 한 사람인 양성룡과 현당서기 이용국이었다. 1932년 가을에 내가 부대를 데리고 이 고장에 와서 유격근거지의 실태를 요해할 때 바로 그들이 나의 안내를 담당하였다. 나는 그 때 왕청현 안의 여러 유격구들을 돌아다니며 기층당 조직들의 사업과 반일회, 반일부녀회를 비롯한 대중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하였다. 또한 반일부대들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는 공작원의 사업정형도 청취하였다. 우리가 소왕청에서 동만각 현의 병기공장 성원들과 유격대 지휘관들을 모여놓고 작탄강습을 진행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 당시 왕청간부들은 식량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농호가 수십 호밖에 되지 않던 소왕청의 좁은 골 안에 1000명도 넘는 인파가 단번에 쓸어들었는데 유격구에는 그들을 먹여살릴 만한 식량예비가 전혀 없었다. 유격대가 적들을 치고 이따금씩 식량을 노획해온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거지 주민들의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웠다. 유격구의 척박한 뙈기밭들에서 거두어들인 한 해 수확량이란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식량을 해결하기 위한 당면한 타개책으로 중간지대의 추수 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되었다. 중간지대란 적 통치구역과 유격근거지 사이에 놓여 있는 무인촌을 말한다.

소왕청과 대왕청 어귀에도 빈 부락들이 여러 개 생겼다. ≪토벌대≫가 달려들어 살판치는 바람에 사람들은 모두 유격구와 적구로 갈라지고 중간지대에는 곡식만 남게 되었다. 그런 곡식들 중에는 적구로 내려간 지주들과 반동들의 것도 있고 ≪토벌대≫의 총탁에 밀려 백초구나 대두천 같은 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농민의 것도 있었다.

중간지대의 곡식에 대해서는 적구에서도 잔득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적구의 지주들과 반동들은 무장을 한 자위단의 엄호를 받으면서 마차와 달구지들을 끌고 날마다 중간지대에 나타나 낟알을 걷어냈다. 어떤 날은 그들이 탈곡장 근처에까지 와서 총질을 해댔다.

우리는 그때 이런 실정을 파악한 데 기초하여 모든 유격구들에서 추수대를 조직하여 근거지 인민들의 총동원으로 중간지대의 가을걷이를 지체없이 끝낼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왕청 사람들과 함께 그 해결책을 상론하였다. 추수대는 소왕청 어귀에서 곡식을 베면서 대두천 방향으로 내려갔다. 그날 벤 곡식은 그날로 털어서 창고에 넣고 유격구 주민들에게 분배하였다.

13호톤 아래부터는 적위대가 보초를 서주어야 추수를 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5연발로 무장한 자위단의 습격을 면할 수가 없었다. 어떤 날은 추수대가 새하얗게 달라붙어 곡식을 베고 있는 포전을 사이에 두고 적위대와 자위단 사이에 맹렬한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한 줌의 낟알을 위해 야밤삼경에도 쉬지 못하고 결사적인 추수전을 벌이는 왕청시민들의 모습은 우리를 무척 감동시켰다.

비록 간고하기는 하지만 근거지에서 매사가 우리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보고 나는 그때 매우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소왕청을 떠났다.

나는 유격근거지로 되돌아가면서 자기 앞에 두 가지의 큰 과제를 내세웠다. 하나는 유격대오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활동 무대를 두만강 연안으로 옮기게 된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맞게 각계각층의 애국역량을 한데 묶어세우기 위한 통일전선사업과 중국인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이자는 것이다.

마 노인은 우리를 전각루까지 안내해주고 라자구로 돌아갔다.

마 노인을 대신하여 우리를 안내한 성미가 걸걸한 반일회원은 왕청유격대의 소부대들이 그동안 요영구와 사수평에서 일본침략군 토벌대≪를 답새긴 데 대하여 옛말처럼 구수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는 다음날 반일인민유격대라고 쓴 깃발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왕청 1구의 소재지인 요영구 유격구역에 들어섰다.

훗날 내 곁에서 전령병으로 복무하다가 전사한 최금산의 숙모 홍영화가 스무나문명 되는 아동단원들을 데리고 신작로에 뛰어나와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열광적으로 마중해 주었다. 그 여자는 왕청1구 당위원회 산하에서 부녀사업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유격대와 반일부대에 대한 후원을 잘하여 군민들의 사람을 받고 있었다.

그날 요영구 인민들은 우리에게 기장떡도 해주고 메밀국수도 눌러주었다. 저녁에는 아동단원들을 내세워 공연도 해주었다.

≪**김일성**부대에 대한 소문이 벌써 몇 달 전부터 돌았습니다. 남만에 나갔다가 북만에 들어와서 돈화와 액목을 쳤다는 소식도 다 들었습니다. 우리 고장 사람들이 김대장 부대를 눈이 까매서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더 든든해집니다.≫

공연이 끝난 다음 군대와 인민이 한데 어울려 오락회를 하고 있을 때 내 곁에서 그 광경을 눈물겹게 바라보고 있던 왕청 1구 당위원회 조직부장 이웅걸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와 함께 오락장을 떠나 구당위원회 사무실에서 유격구 사업을 장시간 논의하였다. 논의의 초점으로 된 것은 전각루와 같은 고장들에서 우리의 당조직과 혁명조직들을 어떤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겠는가 하는 것과 유격구의 전체 인민을 어떻게 무장시키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우리의 담화가 유격구 보위에 대한 이야기로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 적구에서 통신원 한 사람이 비밀쪽지를 가지고 요영구로 찾아왔다. 그 쪽지에는 내일 대홍구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수비대놈들이 유격구를 ≪토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짤막한 글이 적혀 있었다.

≪지난 해 섣달에 얻어맞은 분풀이를 하려고 올테지요. 저 악귀같은 놈들이 글쎄 수천리 길을 걸어온 귀빈도 몰라봅니다 그려. 우린 사실 김대장 부대를 여기서 며칠간 푹 쉬다 가게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일이 공교롭게 됐습니다≫

이웅걸은 마치 일본군이 요영구를 토벌하러 오게 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라도 한 것처럼 송구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공교롭게 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몇 달동안 싸움을 하지 못해서 모두들 손이 근질거리던 판인데 마침 잘됐습니다. 대감자와 전각루, 덕원리, 삼한리 참변에서

→

우리 인민이 흘린 피값을 받아낼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이광에서 부대를 데리고 요영구에 속히 와달라는 연락을 보냈다. 이웅걸도 등이 달아서 마라초를 연방 태우다가 오락회장에 있는 적위대장을 불어들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표정을 살펴보니 총동원령이라고 내릴 듯한 기상이였다. 나는 이웅걸의 팔소매를 잡고 웃으면서 그를 걸상에 끌어다 앉혔다.

≪웅걸동무. 적위대원에게 토벌대가 온다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그러는게 아닙니까? 오락회가 절정에 이른 것 같은데 흥이 다 깨질 수 있으니 그냥 놀게 놔두시오. 그 대신 한 시간 후에는 적위대원들을 모두 집에 보내 새벽까지 푹 재웁시다. 나도 오늘 밤에는 우리 동무들을 일찍 재우겠습니다.≫

토벌대의 기습계획을 알리는 긴급통보 앞에서 우리가 인차 임전태세를 취하지 않고 군민의 오락회가 계속되도록 태연스럽게 방임해둔 것은 사실 군사 실천상의 견지에서 볼 때 상식에 어그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당위원회에서 조직부장직과 함께 군사문제까지 책임지고 있는 이웅걸이 초조해하며 불안스러운 눈길로 나를 쳐다본 것은 무리가 아니였다. 하지만 나는 대원들이 오락회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갈 때까지도 그들에게 적구에서 온 통보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여로에 지친 대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전투정황이 일단 제시되고 명령이 하달되면 어떤 철심장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오늘 밤만은 제발 수면시간을 침해하지 말자. 이 겨울에 그들이 잠인들 제대로 잤는가.≫

이것이 그날 밤 나를 사로잡은 생각이였다. 유격대를 영솔하는 지휘관으로서는 삼가야 할 그런 인정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밤 11시까지는 모든 대원들이 숙소에 돌아가 잠에 골아떨어졌다.

우리의 길 안내를 담당했던 전각루의 반일회원과 적구에서 온 연락원은 나의 처사가 미타해서인지 자정이 지난 다음에도 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웅걸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치락거렸다. 나는 그에게 귓속말로 넌지시 물었다.

≪아까 행군을 해오면서 보니까 요영구 어귀의 앞 뒤 고지들이 묘하게 생겼던데 싸움을 거기서 벌이면 어떻겠소? 그 앞으로 자동차길이 나 있지?≫

내가 이런 말을 꺼내자 이웅걸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북구 서산말입니까. 그곳이야말로 싸움을 해볼 만한 금성탕지이지요.≫

나와 이웅걸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오간 것은 새벽 4시경이였다. 얼마 후 우리는 요영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북구 서산으로 올라갔다. 적위대장과 전각루에서 온 반일회원도 우리와 동행하였다. 서산평행으로 뻗은 강을 소통구라고 불렀다. 서산고지에는 바윗돌들이 많았다. 그 바윗돌들은 유격대가 의지하여 싸울 수 있는 훌륭한 ≪천연 방어축성물≫들이였다.

우리는 벼랑과 벼랑 사이에 여러 개의 돌무지를 쌓아놓은 다음 요영구 적위대 병력과 우리 부대 대원 전원, 별동대의 일부 성원들을 모두 서산으로 불러올렸다. 그리고는 언 땅을 파서 진지를 만들게 하고 전투명령을 하달하였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런 곳을 선조들은 금성탕지라고 하였다. 방비가 철통같이 튼튼히 성지라는 뜻이다. 공격자에겐 불리한 곳이지만 방어자에겐 얼마나 유리한 명당인가. 그러나 금성탕지도 좋지만 나는 동무들의 솜씨를 더 믿는다. 동무들, 참변의 노래만 부르지 말고 오늘은 우리 인민이 흘린 피의 대가를 몇백 배로 받아내자. 피는 피로써!

나의 전투명령은 이런 선동열설로 끝났다.

그날 4대의 자동차에 분승하여 요영구 골안으로 쳐들어오던 80여 명의 일본군은 우리의 매복전술에 걸려들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다. 대홍구의 일본수비대는 다음날도 있는 무력을 총동원하여 요영구로 쳐들어왔으나 무리죽음을 내고 도주하였다.

이 전투가 바로 간도지방의 유격구역에 와서 우리가 치른 첫 전투였다.

역사책에는 아마 요영구 유격구방위 전투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다음날 저녁 요영구 사람들은 대북구 마을에서 전투승리를 기념하는 경축행사를 조직하였다. 이 행사가 지금도 내 인상에 남아 있다.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명 씩 나가서 주먹을 휘두르며 축하연설을 하였는데 그 열도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나도 물론 그날 밤 격조높은 연설을 하였다. 내가 요영구에서 오진우를 만난 것이 아마 그해 겨울이던지 그 전해 가을일 것이다. 그 때 소북구 마을 인민들은 오진우가 아동단 지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아동단 학교에서 우리에 대한 환영회를 열었다. 오진우는 그 환영회 때 내가 38식보총을 짚고 연설하던 광경이 제일 인상이 깊었다고 하면서 나와 처음으로 상봉하던 때를 종종 감회깊이 회상하곤 하였다. 그 당시 그의 나이가 15살인가 16살 쯤 되었던 것 같다. 그 때 그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찬 싸창을 자꾸 만져보았다. 총이 몹시 탐나는 모양이였다. 우리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는 모두가 38식보총이 아니면 성능이 높은 최신식 권총들이였다. 나는 오진우에게 유격대에 들고 싶은가고 물었다. 그는 들고 싶은데 나이가 어리다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였다. 우리는 다음해였던지 그 다음해인지 그를 왕청 4중대에 받아들이고 북만원정에도 참가시켰다. 우리가 요영구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유격구의 당사업과 군중단체들의 사업까지 요해하고 나서 소왕청으로 떠날 차비를 하고 있을 때 마침 그곳에서 중요한 군사문제를 두고 상론한 일이 있으니 마촌으로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기별이 왔다.

우리는 인차 요영구를 떠났다. 우리가 소왕청에 도착하였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왕윤성과 그밖의 다른 두사람이였다. 왕윤성을 일명 마영이라고도 하였는데 사람들은 본명보다도 그를 ≪왕다노대≫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렀다. ≪왕다노대≫란 머리가 유별나게 크다는 뜻이다. 나는 ≪따거우재≫를 비롯한 유격구 간부들의 안내로 마촌 북쪽 산기슭에 있는 이치백 노인네 집에 숙소를 정하고 거기에서 동만당 대표들을 만났다. ≪따거우재≫란 이용국의 별명인데 키꺽다리라는 뜻이다. 그 당시 그는 왕청현당에서 서기로 활동하고 있었다. 마촌에 ≪유동객장소≫라고 부르는 독신자들의 합숙이 있지만 수용인원이 많고 번잡하여 머무를 곳이 못된다고 하면서 소왕청사람들은 나를 한사코 이치백노인네 집에 있게 하였다. 이치백은 김중권의 장인되는 분이였다. 그 노인의 부인을 서성녀라고 하였다. 이치백노인네 가정은 온 일가가 혁명을 하는 애국적인 가정이였다. 나는 이 집에서 다부산자를 입고 왕윤성 일행과 담화를 하였다.

≪왕청입성을 축하합니다!≫

이것이 ≪왕다노대≫의 첫 인사말이였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나도 그의 손을 틀어잡고 반갑게 답례하였다. 왕청과 같이 서름서름한 고장에 와서 왕윤성과 같은 구면의 혁명가를 만난 것은 나에게 있어서 일종의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내가 ≪왕다노대≫를 맨 처음으로 만난 것은 남만진출을 끝내고 안도에 돌아와 반일부대와의 사업에 부심하고 있던 때였다. 그 때 왕윤성은 진한장과 함께 맹탄장부대에서 구국군 공작을 하고 있었다. 북만 일대에 있던 맹탄장부대가 안도지방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목적은 요녕 일대의 당취오자위군과 연계를 가지고 그들과의 합작을 성사시키자는 데 있었다. 구국군 부대에서 오의성과의 사업을 하고 있던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남북만 항일군의 연합을 통하여 만주 전역에서 반일투쟁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오의성이 안도에 맹탄장 부대를 보낸 다른 하나의 목적은 아편을 입수하여 군자금을 충당하자는 데도 있었다. 안도 일대는 아편과 인삼의 주요한 산출지였다. 당취오도 부하들을 파견하여 안도의 아편을 독차지하려고 하였다. 그 당시 만주지방에서는 아편이 돈을 대신하는 위력한 등가물로 인정되고 있었다.

≪구국군이 돈화와 액목에서 **김일성** 동지네 부대와 함께 성시를 칠 수 있은 것은 아편 덕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도에서 아편을 대량 구입하여 나누어 존 것이 대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계기로 되었거든요.≫

이광의 집에서 반일병사위원회를 할 때 왕윤성을 농담절반, 진담 절반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우리는 그 때 벌써 이런 비밀을 서슴없이 터놓을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한 사이가 되었었다. 왕윤성은 안도에 체류하는 기간 우리의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 내가 호진민이나 주보중한테 보내는 연락도 그가 하였고 주보중이나 호진민이 나에게 보내는 연락도 그가 맡아주었다. 왕윤성은 구국군 부대에서 선전간사의 간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령부는 말할 것도 없고 연대부나 대대부, 중대부 같은 데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는 나와 구국군에 파견된 공산당원들 사이에서 전달장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사범학교 계통 출신의 인텔리들이 대체로 그런 것처럼 왕윤성도 허우대는 크지만 성품이 매우 온화하고 선량하였다. 그는 녕안에서 사범학교를 다닐 때 베이징, 남경, 천진과 같은 대도시들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동창생들의 영향을 받아 혁명활동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그가 직업적인 혁명가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반성위의 영향도 컸다고 한다.

≪동만에서 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기 시작한 지금 **김일성** 동지에 대한 기대는 참으로 큽니다. 당사업, 유격대 사업, 구국군과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만혁명이 유능한 전략가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때에 **김일성**동지가 왕청에 온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는 동만과 북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변들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분석을 하였으며 동만당 앞에 제기되고 있는 당면문제들을 두고 나와 함께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이날의 논의에서 절박한 문제로 상정된 것은 각 유격구역들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중대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세우고 군사역량을 질량적으로 시급히 확대강화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후 동장영과도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왕청의 유격대 중대들은 대대부의 통일적인 지휘하에서 움직이게 되었다. 그 후 동만의 다른 현들에서도 중대들을 총괄하는 대대들을 내오고 지휘관들을 새롭게 배치하는 개편과정을 거쳐 유격운동의 본격적인 활성기를 준비하였다. 우리의 왕청입성은 이처럼 인상적인 세부들과 사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 안 있어 우리는 인차 왕청풍토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활동무대와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항시적으로 느끼곤하던 서먹서먹한 감정은 인차 새 고장에 대한 애착과 호기심으로 바뀌어졌다. 1933년 당시의 나는 사실상 혈혈단신이나 다름없는 몸이었다. 어머니의 상실은 우리 삼 형제를 고아로 만들었고 그 삼 형제의 보금자리였던 소사하 갈밭 부락의 정든 집에 거미줄을 내리게 하였다. 나에게 남은 것이란 남의 집에서 눈치밥을 먹고 있는 두 동생과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고향집의 지붕 밑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나라에 바치고 쓸쓸히 살아가고 계시는 조부모님들 뿐이었다. 그리고 꿈 속에서도 무시로 떠오르는 그 고향에 대한 애잡짤한 향수뿐이였다. 조부모님들에게 바치고 싶은 나의 효도는 고향집 토방에까지 가닿을 수 없었고 동생들을 돌보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싶은 나의 욕망은 속절없는 걱정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이제 내가 정을 기울일 곳이란 유격구밖에 없었다. 유격구의 인민은 나의 조부모, 나의 부모, 나의 동생들을 대신하게 될 혈육이었다. 나는 서성녀 어머니의 모습에서 곧 우리 어머니의 인덕과 사랑과 은정을 되찾았다.

적들의 항시적인 봉쇄와 거듭되는 토벌 속에서 동만의 유격근거지들은 처음부터 중중첩첩한 시련의 고비들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싸움도 많이 하고 피도 많이 흘리고 고뇌도 많았던 잊지 못할 역사의 땅 왕청, 어떤 날은 한 유격구에서 희생자가 수십명씩 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주민가옥들과 병식들이 수십 채씩이나 불에 타버리기도 했다. 병원들은 부상자들과 환자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어데서나 겪게 되는 식량의 결핍, 주기적으로 찾아드는 기근은 숱한 아사자를 냈다. 때로는 전염병 때문에 간도전역이 무리죽음의 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상점도 없고 시장도 없고 장사군도 없는 세계 유일의 비상업지대, 여기서는 화폐가 통용되지 않았고 가치법칙이 은을 내기 못하였다. 주민들의 옷과 신발은 군대의 전리품으로 충당하였다. 좌경의 전횡으로 유격구의 공기는 이따금씩 불안에 떨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은 근거지의 생활에서 주되는 것이 아니였다. 유격구의 생활에서 주도적 흐름을 이룬 것은 비록 제한 적이고 상대적인 성격을 띤 것이기는 하지만 적의 폭압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새 생활과 낙천적인 정신상태였다. 곤란은 막심하였으나 군민의 기상은 백두의 멧부리처럼 도도하였다. 일본과 만주국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절해고도와 같은 땅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문화와 도덕을 창조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유격근거지를 사랑하였다. 근거지를 고수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영웅적 미거는 동만 땅에서 매일처럼 발현되었다.

싸움 속에서 해가 뜨고 싸움 속에서 날이 저무는 북간도 오지,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 속에서도 새 생활, 새 윤리의 고고지성이 우렁차게 울리는 유격근거지는 내가 사랑하는 집으로 되었다. (끝)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다 (2)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론설(전문) - 주체91, 4월 22일

1960년대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 ≪EC-121≫사건 때나 1970년대의 ≪판문점사건≫때 우리를 압살하기 위한 미제의 침략무력증강과 기동, 위협공갈은 실로 도발적인것이였다. 세상사람들의 이목은 조선에 집중되였다. 이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적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는것을 단호히 선언하고 무자비한 징벌로 이 선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보여 주었다.

미제는 위대한 령장들의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무비의 담력에 의하여 드디여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미국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사죄문을 바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1990년대의 그처럼 엄혹한 시련의 시기 우리의 사회주의를 결사수호한 기적은 령장이 지닌 군사적예지와 기질, 령군술이 혁명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더욱 생동하게 보여 주었다.

이 시기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동서랭전이 조미대결로 압축된 엄혹한 시기였다. 미제는 웅근 한차례의 세계대전이라도 치를수 있는 방대한 최신예침략무력을 끌어 들이며 군사적압살책동의 예봉을 우리 나라에 집중시켰다. 여기에 례년에 없었던 자연재해까지 여러해째 들이닥치고 경제적난관이 겹쳤다. 우리 인민은 자주적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가, 노예적굴종을 강요 당하는가 하는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였다. 조성된 엄혹한 정세는 경제냐, 군사냐 하는 량자택일을 요구하였다.

이 위기의 시각 위대한 령장 **김정일**동지께서는 결연히 혁명적신념과 의지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였다. 선군에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경제도 추켜 세울수 있는 길이 있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정치신조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혁명적각오와 의지가 비낀 견인불발의 정치이며 죽음을 각오한 사생결단의 정치이다.

혁명의 운명을 걸고 선군정치를 펼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단신으로 제국주의자들과의 군사적대결전의 전초선에 서시였다. 이 간고한 나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는 신념의 결단을 세상에 선포하시고 멀고 험한 군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나가시며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의 가장 준엄한 시련을 이겨 내고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의 운명을 지켜 내는 전설 같은 기적이 일어 났다. 제국주의자들은 핵무기까지 휘두르며 별의별 군사적압살책동을 다했지만 위대한 령장의 신념과 의지로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들고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세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사항전의 모습에서 위대한 령장 **김정일**동지의 신념과 의지, 담력과 지략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보았다.

1993년의 이른바 ≪핵의혹≫소동과 대규모전쟁연습, 1994년의 유엔≪제재≫책동과 1998년의 ≪5027작전계획≫의 실현책동을 비롯한 미제의 침략전쟁도발책략은 위대한 령장의 신념과 의지, 천변만화의 지략과 령군술에 의하여 여지없이 파탄되고 말았다.

총포성 없는 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마다에는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으로 조성된 정황의 본질과 그 발전추이를 명철하게 꿰뚫어 보고 적중한 대응책을 세워 나가는 천재적령장의 빛나는 예지와 지구가 깨여 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무적필승의 령장의 신념과 담력, 적들이 한걸음 접어들면 열걸음, 백걸음 맞받아 나가 무자비하게 타격하며 그 누구도 전혀 예측할수 없는 신묘한 수로 적들의 급소를 때려 기어이 무릎을 꿇게 하는 천출명장의 령활무쌍한 지략이 놓여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군사적자질과 품격은 일찌기 전설적령장들의 슬하에서 성장하시면서 천품으로 이어 받으신 백두산의 기상과 담력이며 백전백승의 령장의 작전대앞에서 체득하신 무적필승의 기질이다.

세상사람들을 놀래운 미제와의 군사적대결전에서의 우리 군대와 인민의 련전련승은 위대한 령장을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군대와 인민만이 제국주의자들과의 군사적대결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를 수호할수 있다는 혁명원리의 진리성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최근 미제는 우리 나라를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핵선제공격≫을 포함한 군사적침략을 감행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남조선에 범죄적인 살인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 들이며 우리에 대한 군사적압살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력사의 교훈을 잊고 극도로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다. 하지만 반세기전 조선전쟁말기 미제의 우두머리로 등장한 아이젠하워가 허장성세하면서 들고 나왔던 이른바 ≪신공세≫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에 의하여 빛도 보지 못하고 좌절되였던것처럼 오늘 상대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날뛰는 미제호전광들의 대조선압살책동과 침략전쟁도발흉계도 위대한 령장을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에 의하여 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위대한 령장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미제의 그 어떤 군사적압살책동도 단호히 짓부시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고수해 나갈것이다.

2

우리 혁명은 위대한 령장을 정치의 수위에 모시여 승승장구하고 있다.

사회주의위업수행은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벌어 지는 사회주의수호전인 동시에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로정이다.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는 사회주의건설을 통하여 이룩된다. 사회주의위업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창조해 나가는 력사상 가장 거창하고 심각한 사회적변혁이다. 세기를 넘어 21세기에 들어 선 오늘의 사회주의건설투쟁은 그 복잡성과 치렬성에 있어서나 사회경제적변혁의 웅대성과 심도에 있어서 력사에 있어 본적이 없는 위대한 혁명투쟁이며 거창한 건설사업이다.

사회주의건설투쟁은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정치적령도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사회주의정치는 낡고 뒤떨어 진것을 변혁하는 혁명성으로 일관되여야 하며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뚫고 나가는 전투성으로 담보되여야 한다.

위대한 령장의 예지와 슬기를 지닌 정치지도자만이 혁명성과 전투성으로 일관된 정치로 제국주의반동세력을 제압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정치적조건과 평화적환경을 마련해줄수 있으며 천만대중을 조직화하고 불러 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을 힘 있게 전진시켜 나갈수 있다. 탁월한 령군술을 구현한 정치에 의하여서만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칠수 있는 위력한 전투형식이 창조된다.

혁명성과 전투성이 담보되는 정치는 정치와 군사를 옳게 결합시키고 정치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할 때 성공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정치와 군사는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두개의 기본기둥이다. 정치는 곧 힘이며 그 힘은 다름 아닌 군사력이다. 군사적담보가 없는 사회주의정치는 무력하다. 사회주의정치의 성공의 비결은 강력한 군력에 있다. 군사와 정치의 분리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실패의 출발점이다.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는 정군분리의 필연적귀결이다.

정치와 군사의 결합은 문무를 겸비한 위대한 령장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력사에는 정치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장군으로 불리운 군사가들도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치에 밝으면 군사를 모르고 군사를 알면 정치를 모르는것이 보편적현상으로 되여 왔다. 지난 시기 정치와 군사를 결합시키는 문제가 완벽한 해결을 보지 못한것은 문무를 겸비한 령장형의 정치가가 없었기때문이다.

정치와 군사결합의 최고형태는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정치이다. 이것은 혁명군대를 정치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위력한 정치이다.

령장의 정치의 위대성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있다. 혁명군대는 높은 정치사상성과 조직성, 규률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집단이다. 혁명군대는 사회의 어느 집단보다도 혁명성과 전투성, 헌신성과 실천력이 강하고 투철하다. 혁명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하여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해 나가는데 사회주의건설투쟁의 승리를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이 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혁명무력을 적과 싸우는 무장집단으로뿐아니라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혁명을 선도하는 정치적군대로 건설하시고 그에 의거하여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는 선군혁명령도의 시원을 열어 놓으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선군혁명령도의 위대한 전통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위력한 무기이며 사회주의건설의 만능의 보검이다.

력사에는 각이한 류형의 정치방식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운동사에서 정치와 군사를 가장 높은 형태에서 결합시키는 정치, 선군정치를 내놓은 정치가는 일찌기 없었다.

선군정치와 같은 위대한 정치방식은 오직 군사에 정통하고 군력의 진가를 아는 령장형의 정치가만이 내놓을수 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위대한 령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김정일**식정치방식이며 새 시대의 불패의 정치방식이다.

인민군대를 강화하여 조국을 보위하고 사회주의건설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며 인민군대를 기둥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돌파구를 열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해 나가는데 선군정치의 혁명적본질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오늘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풍모와 투쟁기풍, 일본새와 살림살이기풍을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사회의 모범이 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선도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온 사회에 인민군대를 따라 배우는 사회적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서 인민군군인들이 창조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결사관철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영웅적희생정신이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다.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빛나게 구현되여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조국땅우에는 강성대국건설의 새 시대가 펼쳐 지게 되였다. 강성대국건설은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과 군사적위력, 경제적위력을 최상의 높이에 이르게 하기 위한 거창한 위업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의 나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구호를 추켜 드시였다. 이것은 위대한 령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무비의 담력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 오신 나날은 정세가 긴장하고 나라형편이 어려울수록 종자론을 구현하여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며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섬멸전을 벌려 일단 시작한 일은 무조건 끝장을 보고야 마는 령장의 특이한 정치예술의 빛나는 구현과정이였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간고한 투쟁속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을 구현한 강계정신이 창조되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가 세차게 타올랐으며 이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였던 발전소들과 드넓은 소금밭들,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공장들, 고속도로 등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21세기 강성대

→

국의 체모에 맞게 일떠서고 대규모적인 토지정리와 최첨단과학기술발전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이 모든 기적적인 성과들은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자주정치는 사회주의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자주정치실현의 결정적담보는 위대한 령장을 정치지도자로 모시는데 있다.

자주정치는 강력한 군력을 전제로 한다. 군력이 강해야 대외관계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울수 있고 자기가 선택한 로선을 끝까지 견지할수 있다. 위대한 령장에 의하여 강력한 군사력이 마련되며 불패의 군력에 의거하여 자기의 주견과 독자적인 결심에 따라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자주정치가 보장되게 된다는것은 사회주의정치의 근본리치이다.

위대한 령장만이 강한 군력에 의거한 자주정치로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하고 사회주의를 승리에로 이끌어 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위업은 혁명적원칙에 의하여 고수되고 전진하는 위업이다. 사회주의는 혁명적원칙을 지키면 승리하고 혁명적원칙을 버리면 망한다.

조선혁명이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공세와 위협공갈, 현대수정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끊임 없는 간섭과 압력책동에도 불구하고 혁명적원칙에서 단 한치도 물러 섬이 없이 사회주의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나가고 있는것은 위대한 령장이 선군에 기초한 자주정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있다.

우리 당은 령장형의 탁월한 정치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여 전후 제국주의자들의 위협과 유인책동, 현대수정주의자들이 강요한 대국주의적압력과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고 사회주의원칙을 견결히 고수하여 왔다.

위대한 령장 **김정일**동지를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은 1990년대의 준엄한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원칙을 끝까지 지켰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제국주의자들이 집요하게 감행한 군사적위협공갈과 ≪개혁≫, ≪개편≫에로 유도해 보려는 시도들이 걸음마다 파탄을 면치 못하고 노래 ≪높이 들자 붉은 기≫가 90년대의 적기가로 온 강산에 메아리친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자주정치의 위력에 대한 과시로 된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이 가장 첨예하게 벌어 지는 분야의 하나는 정치외교전이다. 강력한 군력은 대외관계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담보하지만 쇠약한 군력은 사대굴종과 민족의 치욕을 가져 온다.

우리 나라는 력사적으로 큰 나라들사이에 끼워 오랜 세월 국제사회의 말석에서 사대굴종의 치욕을 당하여 왔다. 그러나 위대한 령장의 탁월한 정치에 의하여 오늘 세계무대에서 차지하는 우리 인민의 지위는 근본적으로 달라 졌다.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에서 우리 인민이 지금처럼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떨치며 제국주의자들의 강권정치에 굴복하거나 그 누구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 나간 때는 일찌기 없었다. 여기에는 선군에 기초한 자주정치로 조국의 지위를 비상히 높여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이 빛나고 있다. 가장 적중한 시기에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우리 혁명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위대한 령장의 정치예술의 구현이다. 위대한 장군님과 같이 독특한 선군외교전법으로 강경하게 나오는 적들을 초강경으로 제압하시고 격변하는 세계정세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능란하고 주동적인 외교활동을 벌리시면서 걸음걸음 국제무대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세계정치사에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기시는 절세의 위인을 력사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 세계정치외교무대에서는 저마다 우리와 친선을 도모하려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 지고 있다. 지난 날 우리를 경계하거나 멀리하던 나라들, 지어 적대시하던 나라들이 우리 나라와 공식외교관계를 맺는 극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 나고 있다. 이 시대적흐름속에서 서방의 반공화국포위망이 무너지고 주체조선의 위용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이 떨쳐 지고 있다.

최근년간에 일어 나고 있는 이 정치적 ≪지각변동≫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지위와 존엄을 비상히 높이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며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서 근본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선군정치, 자주정치로 혁명승리의 앞길을 열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 놓인다 해도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3

우리 혁명은 위대한 령장을 인민의 어버이로 모시여 불패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떨치고 있다.

혁명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사회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는 력사적위업이다.

일심단결은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다.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은 사회주의의 정치적지반을 튼튼히 다지고 그 발전의 추동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기 위한 결정적요인이다. 일심단결은 사회주의의 승리이고 사분오렬은 사회주의의 죽음이다. 사회주의위업의 불패성은 곧 단결의 공고성이다. 혁명의 주체의 일심단결의 근본담보는 위대한 령장을 인민의 어버이로 통일단결의 중심에 모시는데 있다.

통일단결의 공고성의 리상적척도는 혁명군대의 일심단결이다. 혁명군대는 사상적, 조직적통일단결이 혁명적동지애에 의하여 백배로 공고히 되고 그 위력이 가장 숭고하게 발휘되는 사회적집단이다.

혁명군대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울 각오를 가지고 혁명의 길에 나선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의 집단이다. 혁명군대의 동지적관계의 숭고성은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전우의 관계, 피로써 맺어 지는 혈연적뉴대라는데 있다. 혁명군대의 군인들속에서 발현되는 동지적사랑보다 더 진실하고 열렬하며 순결한 동지애는 세상에 없다.

혁명군대는 강철 같은 일심단결대오의 표본이다. 대오의 사상과 행동의 일치성과 통일성, 전일성을 보장하는데서 혁명군대를 따를 집단은 없다. 혁명의 주체에서 대오의 통일단결의 수준과 공고성이 제일 높고 강한 집단은 혁명군대이다. 혁명군대안에서 발휘되는 고결한 동지애와 사상 및 행동의 일치성의 귀중함과 거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깊이 절감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키워 주는것은 위대한 령장이다.

위대한 령장만이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혁명군대의 일심단결의 수준으로 끌어 올릴수 있으며 그 필승불패의 공고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조선혁명은 위대한 령장을 인민의 어버이로 모시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이 고귀한 진리를 실천으로 확증하고 시대적모범을 창조한 자랑스러운 혁명이다.

우리 혁명에서 단결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ㅌ. ㄷ≫에 그 시원을 두고 있는 단결의 전통이 대를 이어 가며 꿋꿋이 고수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장을 단결의 중심에 모신데 있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더 없는 영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의 나날에 창조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빛나게 구현하여 오신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고귀한 전통과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열화 같은 혁명적동지애,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어버이사랑과 믿음은 위대한 장군님의 천품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동지애를 시대정신의 정화로 집대성한 ≪동지애의 노래≫를 제일 사랑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노래를 가지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불패의것으로 다지시고 우리 혁명을 이끌어 나가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 모두의 위대한 동지이시고 혁명전사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전체 인민을 차별없이 한품에 안아 주며 값 높은 삶을 누리도록 보살펴 주고 이끌어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동지적사랑과 믿음은 한없이 뜨겁고 웅심 깊은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열렬한 동지애, 인간애는 혁명선배들을 끝없이 아끼고 존대하시는 전설 같은 의리에도 뜨겁게 스며 있고 혁명의 한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모든 혁명전사들을 영생의 언덕에 세워 주시는 변함 없는 사랑에도 눈물겹게 깃들어 있다.

어려운 시기에 베풀어 지는 사랑과 믿음이 더 귀중하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혁명실록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애병애민의 헌신적복무로 수 놓아 진 위대한 사랑의 장정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7년간 1천 300여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며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친어버이사랑과 크나큰 믿음을 베푸시였다. 인민군군인들을 언제나 나의 병사라고 불러 주시는 크나큰 믿음, 초소에 찾아 오시여서는 군인들의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다심한 사랑, 인민군군인들이 발휘한 영웅적소행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기뻐 하시며 조국과 인민앞에 내세워 주시고 영생의 삶을 안겨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뜨거운 은정은 우리 군대만이 받아 안을수 있는 최상최대의 믿음과 사랑이였고 특전이였다. 공장을 하나 건설하고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하시려고 마음 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친어버이의 모습그대로이다.

위대한 령장이 지닌 숭고한 인덕은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고결한 의리심과 다함 없는 충성을 낳는다. 민심이 천심이라면 그 민심을 틀어 잡는 힘이 바로 위대한 령장의 인덕이다.

위대한 령장 **김정일**동지를 어버이로 단결의 중심에 모시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령장과 전사, 령도자와 인민사이의 일심단결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 섰다.

우리 사회에서는 인민군군인들이 지니고 있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전 인민적사상감정으로 승화되여 온 사회에 수뇌부옹위정신이 꽉 차넘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다는것이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 내린 드팀 없는 인생관이다. 이러한 인생관을 간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기에 ≪고난의 행군≫시기 수령결사옹위의 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들수 있었으며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수많은 육탄영웅, 자폭용사들이 배출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어버이사랑에 의하여 장군님과 우리 군대와 인민의 관계가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관계로 다져 진것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성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시여 군민일치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투쟁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뜻을 받드는데서 장군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의리를 다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의 발현이다. 강성대국건설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낳은 고귀한 열매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 있는 옹군애민의 미풍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가정의 어버이로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민들은 인민군군인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하며 인민군대는 인민의 생명재산을 목숨으로 지키는 옹군애민의 미풍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신 우리 나라에서만 찾아 볼수 있는 자랑스러운 화폭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시여 우리 나라에서는 그처럼 모진 고난속에서도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미풍이 활짝 꽃펴나 온 사회가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변되였다. 남녀청년들이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 하며 자식 없는 전쟁로병들을 친부모로 모시고 위해 주며 부모 없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는것은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의 생동한 모습이다.

위대한 령장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당할 힘은 세상에 없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어버이로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해 나갈것이며 우리 나라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 혁명적동지애가 넘쳐 나는 아름답고 강력한 사회주의나라로 길이 번영할것이다.

조선혁명은 의연히 간고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 우리는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어제도 이겼고 오늘도 승리하고 있으며 래일의 백승도 확신하고 있다.

만고의 령장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다. (끝)

라이스는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

그 사람을 알려면 그 벗을 보라는 명언이 있죠. 이 격언하고 꼭 들어맞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떤 정치인을 논할 때 그의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가를 보고서도 그 정치인의 자질과 능력은 물론 정치가로써의 비전과 인간적인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같은 의미에서 볼 때 극악한 매파인물들로 구성된 현 미국행정부를 놓고서도 무식하면서도 추악스런 부시의 진면모를 잘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부시가 강력한 국가안보팀을 꾸렸다고 고창하며 그 주역으로 내세우는 인물들을 보면 나이도, 생김새도 다르고 심지어 성별도 다르지만 마치 한 형태에서 찍어낸 제품같이 꼭같은 냉전의 능수들이고 전쟁악마들입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 라이스도 그런 호전세력의 대표인물인데요, 서울대 강모씨는 반미반부시항전이 세차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현 미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주자들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라이스는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라는 글을 보내왔어요. 그럼 그 전문을 임현아씨 보내드립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콘돌리자 라이스. 그는 지금 미국내에서 부시와 항시 얼굴을 맞대고 대미정책작성을 비롯한 각종 현안들과 사건들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일명 큰 암닭으로 불리우고 있다.

그가 우리 민중의 가슴속에 증오의 표적으로 새겨진 것은 미공화당의 대통령후보로 나선 부시의 정책보좌관으로 활약하던 때부터였다.

그때 그는 자기의 적수들을 상대로 열띤 대선경쟁을 벌이는 부시에게 힘을 실어준다며 클린턴행정부를 맹비난하는 속에 우리 민족을 분격케하는 망언들도 거리낌없이 늘어놓았다.

≪미국은 북과 같은 정권은 단호하고 결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자유의 적들에 대해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다≫, 당시 미국의 한 일간지는 이런 사실을 전하며 냉전을 먹고사는 매파세력이 권력구조에 들어앉을 때 이를 미국의 악결과는 생각만해도 소름끼친 것이다고 했다. 그날의 예언이 오늘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다.

오늘 미국은 동네북신세가 되어 지구촌 어디서나 두들겨맞고 있으며 심지어 저들의 동맹국들로부터도 배척받고 있다. 유엔인권기구와 유엔마약통제기구에서 축출당하는 것과 같은 미국역사상 전무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속에 행성을 진동케 한 9.11사건도 터졌다.

올 1년 사이에 미국이 이렇듯 구르는 곤경에 빠져들게 된 것은 강권과 독선, 일방주의와 무력행사로 특징지어지는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특히는 이런 정책담당자들이 냉전의 능수로 악명 떨친 강경매파들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라이스가 바로 그 대표인물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미국내에서는 그를 두고 국가의 안보를 보좌하는 인물인지 위협하는 인물인지 분간키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울려나고 있다. 그런 목소리는 특히 그가 부시의 ≪악의 축≫발언을 적극 비호해 나선 것을 계기로 더욱 크게 울려나왔다.

부시가 지난 1월 연두교서에서 북을 비롯한 일련의 나라들을 상대로 ≪악의 축≫발언을 한 것은 테러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전쟁의 불길을 세계 전역으로 확산시킬 것을 분명히 한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였다. ≪악의 축≫발언의 당사국들은 물론 유럽과 러시아, 중국, 아랍국가들과 심지어 미국내에서도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때문이다. 그러나 라이스는 부시의 강경발언을 적극 비호하면서 전세계로 들불처럼 번져가는 전쟁의 불길에 서슴없이 기름을 부어댔다. 그가 부시의 망언을 옹호해 나선 것도 문제지만 그가 내뱉는 말들이 ≪악의 축≫발언에 버금가는 악담인 것으로 하여 더더욱 우리 민중을, 아니 세인을 분격케 했다.

≪북은 대량파괴무기를 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탄도탄미사일을 판다는 세계 제1의 장사꾼, 북은 세계 테러의 탄도미사일수출국, 북의 대량살상무기개발과 수출을 막는 것이 한반도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다.≫

입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북침화염으로 치솟을 그런 악담을 늘어놓는 라이스는 과연 북에 대해 얼마나 알까.

유럽의 한 시사평론가는 부시가 북을 걸고들지만 않았더라도 그의 ≪악의 축≫발언이 그렇듯 행성의 쟁점으로, 논란의 대상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세기말엽 북미대결에 직접 관여했던 인물들이 앞장서 부시의 대북강경바람을 비난한 것도 주목할만한 일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왔고 또 앞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격난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엄혹한 시련속에서 전개된 북미대결. 그때 미국의 고립압살정책을 평화공존정책으로, 전쟁전략을 협상전략으로 바꾸며 끝내는 무릎을 꿇은 것은 북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며 북과의 대결에서 입게 될 저들의 참패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시절의 북미대결도 이제는 과거의 일로 되었다. 오늘 이북군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더더욱 세인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침략자들은 행성 어디에 있건 무주고혼으로 만들어버릴 강력한 타격력과 완벽한 방어력을 갖춘 군대가 이북군이다.

대북침공에 들뜬 70만의 병력이 개전초기에 벌써 앉은 자리에서 소멸되고 가공할 불포구앞에 미본토도 폭파될 수 있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멸행위로 될뿐이다고 한 미군사전문가 모셉 만테스의 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는 절대로 회피해야 할 일은 북과 싸움을 벌이는 것이라는 주장이 파다히 퍼져가고 있다. 미군의 한 군장성이 얘기했듯이 북과 전쟁을 하려면 응분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 소말리아에서 불과 19명이 죽자 겁을 먹고 꽁무니를 빼는 미국이 이런 응분의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런데도 전쟁의 도화선에 불꽃이 튀는 것과 같은 악담을 늘어놓으며 라이스는 과연 미국을 어디로 끌고가려 하는가.

무기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은 호랑이의 콧등에 불침을 놓으려는 것과 같은 미련한 행동을 그만두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청년학생들과 함께-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2일~23일

이회창은 썩은 대쪽

지금 이 땅에서 한나라당의 이회창에 대한 분노와 지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내에서도 반이회창 기운이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내에서 이회창에게 침을 뱉고 돌아서는 국회의원들이 속출되고 있다.

보수세력들 중에도 그를 배격하는 목소리가 높다.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국민을 등진 이회창의 반역행위는 필설로 다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런 이회창의 오만과 독선을 들으며 한나라당을 일당독주무대로 만들고 있으니 여기에 반기를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이회창의 장점으로 알려졌던 대쪽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한낱 허상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지금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이회창의 호화빌딩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난 97년 대선이후 이회창은 구기동자택을 판 다음에 가회동빌라와 잠실의 아파트 등 주거지를 네차례나 옮기며 살고 있다.

현재 그는 3채의 호화빌딩을 각이한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쓰고 있다. 이회창이 그것을 사돈집이라고 핑계하지만 140평짜리 집에서 47개월이상 돈한푼내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4억7000여만원을 증여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법≫으로 볼때 증여세포탈죄에 해당한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고 집을 쓰고 있으니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뻔한 사실이다. 실제로 이회창은 98년이후 재산신고를 하면서 자택에 관한 사항은 한번도 포함시키지 않았고 주거지변경으로 인한 재산변동사항도 밝히지 않았다. 이것도 허위재산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위반에 해당한 것이다.

이회창이 지난해 공개한 재산액수는 2억9500만원이고 지난 99년에는 1억원에도 못미쳐 국회의원 가운데 거의 235위를 기록했는데 그가 무슨 엄청난 돈으로 고급주택들을 임대할 수 있었는가. 또 국회의원이 세비로 받는 돈이 한해에 7000여만원 정도인데 그가 지난해에 최고급 자동차를 사고도 그 이상의 돈을 저축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이뿐이 아니다. 이회창은 부동산투기를 하는데서도 남다른 특기를 발휘하는 협잡배이다. 그는 지난 87년 변호사를 하면서 신흥개발지역으로 떠오른 화성지역에 7000평규모의 임야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서 가지고 있고 지난 97년에는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역에 자기 형과 처남의 공동명의로 183만달러상당의 호화주택을 구입했다.

부정비리와 부정부패, 부정협잡을 일삼는 이회창에게서는 썩은 악취만이 풍긴다. 그러고보면 이회창은 ≪한국법≫을 위반한 죄로 실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야 할 범죄자이다. 그 주제에 청렴결백과 원칙을 떠들며 대쪽인간이라고 광고했으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원래 이회창은 부정비리와 부정부패에 이골이 난 정치거간꾼이고 돈벌레이다. 하기에 그는 국민혈세로 이루어진 안기부자금을 부정협잡의 방법으로 빼내서 일신일파의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탕진했고 법관의 감투를 썼을 때에는 동전을 넣어야 작동되는 공중전화 운운하며 잡범들의 죄를 경감시키는 댓가로 목돈을 빨아내곤 했다. 지금에 와서는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사조직들을 발동해 돈을 빨아내어 대권야욕과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물쓰듯하고 있다. 그리고 재벌들에게 자기가 대권을 쥐면 돌봐주겠다고 유혹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빨아내 돈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그가 기회있을 때마다 국민생활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요설에 지나지 않는다. 이회창이야말로 국민은 안중에 없이 자기의 부귀영달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부패의 왕초이다. 부정비리로 부패할대로 부패타락한 이런 자가 정계에서 돌아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수치이다. 원래 썩은 상처는 한시바삐 도려내야 한다.

각계 민중은 만고역적이고 부정부패의 왕초인 이회창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3일

이회창반대 한나라당해체 투쟁에 과감히 나서자

바닷물이 짠가를 알기 위해서는 대양 전체를 맛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발표된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노선≫을 통해서도 한나라당이야말로 극악한 반민족, 반통일정당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회창반대 한나라당해체 투쟁에 과감히 나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한나라당의 혁신위원회에서 대선을 앞두고 작성한 당의 대북기본노선이 밝혀진후 지금 노농대중을 비롯한 각계 애국민중들은 물론 정치권일각에서까지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과 분노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이건 지극히 정당하다 하겠습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의 기본노선이라는 것이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노선≫에는 당국 사이의 교류협력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철두철미 반민족적인 분열의 논리, 대결의 논리인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같은 핏줄을 나눈 동족간의 관계인 남북관계는 곧 민족문제, 통일문제죠. 민족문제를 등가교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입니다. 더욱이 민족공동의 가치기준도 없는 ≪상호주의≫논리를 남북관계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북과 대결하려는 것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본노선≫에는 또 평화보장이 없는 가운데 교류협력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남과 북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반대하고 남북관계개선을 차단하려는 범죄적 기도의 발로입니다.

사실 한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한나라당과 같은 호전광들때문이죠. 최근에도 이 땅에서는 북침을 노린 대규모 통합전쟁연습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이 이 땅에 있고 부시행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데요. 그런데도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주한미군유지를 애걸하고 부시의 대북적대시정책집행에 돌격대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앞장서 한반도평화를 파괴하면서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교류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건 남북교류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공동선언을 뒤집는 행동이고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인도주의 사업도 하지 않겠다는 소리인거죠.

제반 사실은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이야말로 극악한 반민족반통일정당이며 부시의 졸개정당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건 이 문서가 대선을 앞두고 꾸며졌다는 겁니다. 한나라당과 같은 반역정당이 집권하면 이 땅에서는 전쟁밖에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6.15공동선언과 남북관계가 다 날아가버리고 이 땅에서는 친미사대매국행위가 더욱 우심해지게 되며 통일애국세력, 민족민주세력은 더욱더 가혹하게 탄압당하게 될겁니다.

현실은 우리 노동대중으로 하여금 호전광의 무리, 민족반역자들의 무리인 한나라당을 단호히 깨어버릴 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은 한사람같이 분기해서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민족대결과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는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을 정치적으로 매장해 버려야 할겁니다.

우선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이회창이야말로 이른바 ≪상호주의≫의 주창자이고 6.15공동선언이행을 한사코 방해하면서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구시대 수구세력의 대표적 인물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그를 정계에서 드러내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야 합니다. 특히 애비때부터 역적질을 해온 그의 가문이 오늘날에 와서는 역적질도 모자라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 썩어빠진 가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이번 대선에 노농대중,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적극 참여해 그를 정치적으로 영원히 매장시켜 버려야 할겁니다.

이와 함께 이회창이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을 깨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 과감히 벌여야 합니다. 한나라당이야말로 극악한 반민족, 반통일정당이며 호전광인 부시의 주구정당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나라당과 같은 부시의 졸개정당이 집권하면 우리 노농대중은 미국의 경제침탈강화로 더욱더 큰 고통과 불행속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이런 반민족적이며 반역정당을 깨버리는 투쟁에 노농대중이 앞장서야 할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투쟁을 벌여나감에 있어서 노농운동단체들이 각계 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통해 많은 대중운동단체,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는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확산시켜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이회창

과 한나라당에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백해무익한 쓸개빠진 자들의 무리인 이회창과 한나라당을 정치적으로 영원히 매장해 버려야 할겁니다.

까마귀들이 모인 곳에서 까욱소리밖에 나올게 없는 법이거든요. 이회창과 한나라당이야말로 천하에 극악한 반민족, 반통일정당이고 이런 쓸개빠진 자들의 무리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해체해 버려야 하겠죠.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2일~23일

구시대인물 이회창을 정치판에서 축출하자

지금 극우보수정치에 환멸을 느낄대로 느낀 민중들 속에서는 땅도 갈고 정치판도 갈아서 이번 대선에서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하자는 움직임이 날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재야정치인 이명철씨의 글 ≪구시대인물 이회창을 정치판에서 축출하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임기수씨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16대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대통령권좌를 노린 정치권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동시에 각계 민중들속에서는 구시대적 대결정치만을 일삼아온 극우보수부패정치인들에 대한 불만과 환멸로부터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기운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 극우보수부패정치인들은 사대매국과 반공, 반통일, 독재정치와 부정비리만을 일삼아온 민족반역자, 반통일역적, 독재광들이며 추악한 도둑왕초들이다.

우리 국민은 역대 식민지독재정권의 더러운 사생아들이고 추악한 정치매춘부들인 우익보수부패정치인들의 희생물로 될 그런 치욕스러운 삶을 더이상 되풀이할 수 없다.

이회창으로 말하면 친미친일, 반공과 반통일만을 일삼으며 민주와 언론탄압에 광분해온 극악한 반공, 반통일역적, 민주의 원수이며 우익보수부패정치의 우두머리이다. 민주화와 인연이 없고 민족민중과 등을 돌려대고 기득권유지와 부정축재에 환장이 된 이회창역도가 대통령권좌에 올라앉으면 망국에 망국이 덧쌓여지고 6.15공동선언은 날아나게 되며 우리 국민은 전쟁의 참화를 입게 될 것이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등 각계 민중은 이회창을 정치권에서 축출하기 위한 반이회창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야 한다. 우리 민중에게는 2년전 거족적인 낙천낙선운동으로 우익보수부패정치인들에게 된타격을 안긴 귀중한 경험과 교훈이 있다. 각계 민중은 2년전 4.13총선의 경험을 살려 반이회창투쟁을 과감히 벌여야 한다.

전국민이 원한과 분노를 담아 대권에 미쳐 날뛰는 이회창, 외세에 빌붙어 이 땅의 민주발전을 차단하며 반공대결과 분열책동을 일삼아온 한나라당을 엄정히 심판하여 역사의 오물장에 매장하여야 한다.

운동지도핵심들은 이회창바로보기운동과 후보자바로알기운동을 널리 벌여 이회창이 저지른 사대매국적, 반통일적, 반민주적 행위와 부정비리를 낱낱이 밝혀내고 폭로단죄하는 홍보활동을 적극 벌임으로써 공단가와 농어촌, 대학가와 성당 등 경향 각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반이회창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회창정치활동감시단활동을 적극 벌여 역도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수족을 단단히 얽어매야 한다.

반이회창투쟁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건 이 투쟁을 봄철 계층별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나가는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는 봄철을 맞아 계층별투쟁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미 발전노조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동대중의 투쟁의 포문이 열리고 청년학생들의 등록금인상반대와 교육시장화반대 투쟁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민들의 생존권쟁취투쟁도 적극화되고 있다. 생존권쟁취를 위한 노농대중의 투쟁도 청년학생들의 등록금투쟁 등 반이회창투쟁과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1300만 노동대중은 신자유주의구조조정을 강요하는 미국의 충실한 졸개인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분기해 나서야 한다.

청년학생들은 지금 벌이고 있는 반이회창투쟁의 수위를 더한층 고조시켜야한다. 이와 함께 이번 대선에 적극 참가해서 대선을 이회창을 매장하는 심판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젊은 유권자들이 대선에 무관심하고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이회창과 같은 극우보수부패정치인에게 유리한 기회를 선사하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역대 선거과정이 보여준 심각한 교훈이다. 청년학생들은 보다 많은 젊은층들이 선거에 대거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이회창역도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

반이회창투쟁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건 모든 민족민주세력의 일치단결과 공동행동을 실현하는 것이다. 단결은 승리의 보검이다. 분산적이고 산발적인 행동으로는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애국에 불타고 참신한 정치를 바라는 모든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과감한 투쟁으로 민족반역자 통일의 원수인 이회창을 결정적으로 매장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3일

네티즌, 반미(反美)로 모인다

5월 3, 4일 반미페스티벌 ≪Oh! No USA Festival≫ 열려

≪부당함을 당하고도 제대로 주장 한번 변변히 못해왔던 우리의 역사,

억울함을 당하고도 제대로 맞서보지도 못해왔던 우리의 과거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네티즌의 글 중에서

최근 동계올림픽 사건과 F-15K선정에 분노한 네티즌들이 반미의 한판 축제를 벌일 예정이다.

24일 오전 11시 인사동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Oh! No USA Festival 준비위원회≫ 주최로 ≪Oh! No USA Festival 준비위원회 발족 및 F-15 기종 철회 한국청년네티즌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의 연출을 맡고 있는 노래패 ≪우리나라≫의 지정환씨는 기자회견 취지설명을 통해 ≪최근 일고있는 젊은이들의 미국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 소통하고 젊은층부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당당한 자주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 지정환씨는 ≪동계올림픽 사건 이후 많은 네티즌들이 미국제품 불매운동과 국산품 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내고 있지만, 산발적으로 진행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 수많은 네티즌들이 우리민족의 단결을 한 목소리로 외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지정환씨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반미감정들이 동계올림픽과 F-15K선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겠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네티즌들의 미국상품 불매운동이 한 달 이상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대대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 53%가 지지하고 있다≫며 네티즌들의 반미의식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인터넷카페모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이헌진 홍보부장이 낭독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주최측은 ≪F-15K선정이 공정한 심사의 결과가 아니라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초래된 비상식적 사태≫라며 ≪우리 젊은이들은 더 이상 미국이라면 목소리부터 죽어들어가는 기성세대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F-15K 선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최측은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에 억눌려온 우리 민족의 권리를 되찾고 정정당당한 민족의 역사를 재건하기 위해 사상과 정견, 신앙과 이념, 지역과 연령의 차이를 넘어 굳게 단합할 것≫이라며 ≪F-15 기종선정이 즉각 철회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간섭이 중단될 때까지 미국상품을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주최인 이번 제1회 청년민족축전 ≪≪Oh! No USA Festival≫은 5월 3일과 4일 경희대와 명동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3일에는 오후 3시부터 9시 30분까지 경희대학교 정문앞과 노천극장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발광스테이지와 콘서트가 예정되어있고, 다음날 4일에는 명동에서 두 번째 발광스테이지가 마련된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4/24

군산미군기지 소음피해 소송

주민2천명이 소송단 구성 소송 앞둬

군산미군기지 주변 2천명의 주민들이 이달안에 소음피해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소송 원고단은 하제, 중제, 난산 등 미군기지와 1킬로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마을의 주민들로 그동안 항공기소음소송준비대책위원회(소송대책위, 위원장 김중곤)를 구성하고 국방부 등 정부 당국과 미군측의 무성의한 조치에 항의하는 동시에 소송을 준비해왔다.

소송대책위의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와 옥봉리 주민들은 ≪지난 50여년동안 끊임없이 소음피해,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받아왔으나 정부와 주한미군측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그들도 50년간 이 소리를 듣게 된다면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소음피해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밝혔다.

소송대책위가 구성되기 전에는 지난해 9월부터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소음피해 소송에 대한 인식을 넓혀나갔고 이 자리에는 매향리의 전만규씨가 참석해 현재 매향리 소음피해 소송에 대한 경과를 전하기도 했다.

이후 마을별로 설명회를 통해 각 마을 대책위가 세워지고 임원들이 선정됐으며 현재 하제, 중제, 난산, 남수라, 수라, 신송촌, 산판장전, 신장원, 산동마을의 2천명의 주민들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다.

소송에 앞서 지난 6일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최로 주민 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조사는 앞으로 두 세차례 더 있을 예정이며 군산의료원에서 소음으로 인한 장애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청각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시민모임, 상임대표 문정현)의 김민아 사무국장은 ≪미공군기들로 인해 소음공해의 고통을 50년이상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군산미공군기지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환경문제는 소음공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선연리 주민들은 미군비행장과 접해 있어 24시간 비행연습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소음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지난 99년 군산시의 용역을 받아 시민모임과 녹색연합이 미군기지 부근 지역에서 소음피해 조사사업을 한 결과는 주민들의 고통을 짐작케 한다.

소음피해 조사에 나섰던 시민모임의 김민아 사무국장은 ≪조사 결과 인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곳으로 판정되었고 이처럼 심각한 소음공해는 단순한 난청현상에서부터 사람의 심장에 큰 영향을 끼치며 심지어 정신적인 이상이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가축에게도 그 영향이매우 심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국장에 따르면 ≪화를 자주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도 소음피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다. 소음측정결과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곳이 77db이상을 보여 그 수준이 고양이 울음소리에 이르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소화불량, 피로감,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기지와 인접한 남수라 지점은 평균 소음이 104.8db에 이르러 각종 장애와 통증, 장기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하제, 신하제. 산동, 신난산 등 지점의 소음 수치는 평균 80db를 훨씬 넘어 식욕감퇴와 수면장애, 청력 장애, 귀울림 등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화와 인권 289호
2002/04/24

국회, F15-K 선정 전면지지

군 장교들, ≪심하게 추궁당할 줄 알았는데 의외≫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천용택 의원)가 23일 오후 ≪국방부의 미 보잉사 F-15K 기종 결정은 합리적이었다≫며 국방부 결정을 공식추인,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욱 이날 국방위 결정은 간신히 절반의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내려진 것이어서, 의원들이 사전에 국방부 및 보잉사의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 천용택 국방위원장은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국민들의 광범위한 반발을 ≪오해≫라고 매도, 노골적인 친미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천용택 국방위원장은 23일 오후 김동신 국방장관에 대한 질의응답이 끝난 뒤 ≪의사결정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오해≫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기종 결정에 있어 고려할 단계들을 밟아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추가목표 달성을 전제로 위원회는 이 사업에 동의한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이런 국방위 결정은 지난 2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어이없게 끝난 데 이어 이날도 18명 소속의원중 위원장을 포함해 10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라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위에 시민단체 모니터단의 대표로 참석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방위는 자리를 제대로 지킨 의원을 찾아보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여야간 공방조차 없었다≫며 ≪형식적인 질의응답만 오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동신 국방장관은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과 민주당 조성준 의원이 2억달러 가격인하, 추가 기술 이전, 적정 가격 미 정부 보증 등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협상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자 답변을 회피했다. 김 장관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표현을 여섯번이나 반복하면서 확답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이태호 실장은 ≪후속 군수지원 문제, 기술이전, 적정 가격 문제 등 국방부가 완벽히 보장된 것처럼 주장해오던 것의 허구성과 추가협상의 비현실성 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 2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FX 외압 의혹 진상규명 및 F-15K 내정철회 공동행동≫은 지난 2일과 23일 국방위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에게 그 경위를 추궁하는 공개서한을 발송, 그 답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태호 실장은 ≪심지어 회의가 끝나고 국방부에서 참석했던 장교들끼리 웃으면서 ≪심하게 추궁당할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서 ≪국민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6조원의 세금이 쓰이는 일을 이처럼 무성의하게 처리해도 되냐≫고 말했다.

이 실장은 ≪강창성 조성준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은 맥빠진 질문들만 했다≫며 ≪왜 1단계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지, 조주형 대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지도 추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실장은 회의 시작전 국방위원들에게 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자료를 전달하려다 안내데스크에서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국방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끝났다고 보여진다. 차기 전투기 문제는 오는 5월 대통령재가 이후 본계약 체결 전 다시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전홍기혜기자
프레시안 2002/04/24

지난 1년간 23개국서 77차례 反IMF 시위

英 시민단체, ≪IMF가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성장을 도와주는 구원자인가, 아니면 국제금융자본의 앞잡이로 개도국의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파괴자인가.

영국에 런던에 본부를 둔 한 시민단체는 단연코 후자라고 답한다. ≪세계개발운동≫이라는 이름의 이 시민단체는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한해동안 아르헨티나 23개국에서 IMF의 일방적 경제정책 강요에 항의하는 항의시위및 시민폭동이 77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7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와 세계은행 연례회의에 맞춰 발표된 ≪불안정 상태에 대한 보고서 (States of Unrest) 2≫는 구제금융 제공을 빌미로한 IMF의 ≪정책 지도≫가 어떻게 개도국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다.

IMF 반대시위로 76명 사망

지난해 12월 국가재정 악화로 당시 페르난도 델 라 루아 대통령이 사임한 아르헨티나에서는 반정부 시위로 적어도 3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페르난도 대통령 사임 직후 지난 1월 두 명의 후임자가 잇따라 사임하는 등 심각한 정치위기를 맞았던 아르헨티나의 경제사정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미국의 사주를 받은 IMF가 아르헨티나의 ≪경제개혁≫을 요구하며 자금지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자본도피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지난 19일 또 다시 금융거래를 전면중단시키는 등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세계은행과 IMF 연례회의에서 배포된 세계개발운동 보고서는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사태를 주요 의제중 하나로 만들었다.

≪불안정 상태에 대한 보고서 2≫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국가 역할의 축소에 의해 개발도상국가들은 자국 시민들의 이해를 충족시킬 힘을 갖지 못하게 됐다≫며 ≪시위와 항의, 그리고 파업은 자국 정부와 IMF, 세계은행에 그들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합법적 수단이자 어떤 경우에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IMF와 세계은행 연례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IMF와 세계은행의 세계 민주질서 파괴쟁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2000년 9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세계은행과 IMF 연례회의에 공개된 세계개발운동의 첫 번째 보고서는 대부분 젊은 서구 세계의 시위대들이 세계은행과 IMF에 대해 구조조정프로그램(SAPs,)을 포기하도록 항의하는 시위를 소개한 바 있다. 비평가들은 구조조정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는 가난을 심화시키고 빈부격차를 더 벌리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첫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까지 10개월동안 13개국에서 50차례의 반IMF 시위가 벌어졌다. 또 이 시위과정에서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3백명이 부상당했다.

구조조정 핵심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경제질서 획일화

1999년 빈곤퇴치전략보고서(PRSP)로 개칭된 구조조정프로그램은 전형적으로 정부지출의 삭감, 민영화 추진, 자국 화폐가치의 평가절하, 이자율 인상, 국제사회 시스템에 편입하기 위한 수출증대, 외자 유치 등을 강요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들은 국가경제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으며 특히 가장 어려운 빈민층에게 주는 타격이 크다. 예를 들어 정부예산 삭감은 주로 사회복지예산 지출을 줄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민영화는 대량실업을 양산하고 공공요금의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가난한 정부들은 IMF와 세계은행이 수여하는 ≪양호한 경제운영을 인정하는 증서≫를 받지 못할 경우 해외 민간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이같은 정책들을 추종하도록 의무화돼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해 반IMF 시위가 벌어진 23개국의 상황을 다룬 ≪불안정 상태에 대한 보고서 2≫는 대상국가중 3분의 1은 IMF의 민영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나 그중 반 이상의 국가들은 IMF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23개국중 대략 반 이상의 국가들은 교사와 의사, 경찰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종사자들도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반대시위를 경험했다. 또 3분의 1 정도 국가에서는 정부예산의 지원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기초생활품과 공공서비스의 가격 인상에 대항하는 시위가 목격됐다.

이외에도 3분의 1 정도 국가에서는 후진국에서 종종 상호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IMF와 세계은행을 직접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또 IMF 지원을 받은 한국을 포함해 앙골라 브라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가나 인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네팔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잠비아 짐바브웨에서 발생한 시위와 파업을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또 IMF 지원을 받은 한국을 포함해 앙골라 브라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가나 인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네팔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잠비아 짐바브웨에서 발생한 시위와 파업을 소개했다.

보고서 저자인 마크 엘리스-존스씨는 ≪세계 곳곳에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수백만의 가난한 사람들은 IMF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에 충분히 용감하다. 이 가운데는 의사 농부 교사 노조원 원주민들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IMF가 그들의 정부를 경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획일화된 신자유주의 모델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 국가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격해왔다≫며 ≪빈곤과 무력함이 테러를 부르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때 (정부와 국민간) 민주적 계약의 후퇴는 곧 바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태기자
프레시안 2002/04/24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 · 생활권 쟁취 1000인 선언 진행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의 하나로 1000인 선언이 한창 진행중에 있다.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의 불안정화, 생산적 복지에 반대하고 노동자 민중의 안정적 일자리와 생활보장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지난 4월 17일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선포식≫을 출발로 시작된 공동투쟁은 장애, 이주, 비정규 등의 시기집중 연대투쟁을 계속하면서 투쟁의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다 많은 이들이 이번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 1000인 선언≫이 진행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1000인 선언은 공동투쟁이 2대 기조와 10대 요구안에 동의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며칠되지 않았지만 벌써 500여명의 선언자들이 속속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선언은 5월 1일 불안정노동자 총궐기 집회에서 대외적으로 발표된다. 그리고 메이데이를 전후하여 각종 진보매체, 뉴스, 잡지에 실릴 예정이다.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의 불안정화, 생산적 복지에 반대하고 노동자 민중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자리와 생활 보장을 바라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라도 열려있다.

민중기자
참세상뉴스 2002/04/23

≪노동유연화 반대 ·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자리 보장≫

- 노동법 개악저지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 파견법 및 간접고용철폐 ·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쟁취
- 최저임금제 확대 · 차별적 임금체계 폐지
- 장시간노동 철폐 · 적정인력 확보
- 공적 일자리 확대로 청년 · 장기실업문제 해결

≪생산적 복지 반대 ·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 보장≫

- 복지급여(4대보험 및 공공부조)에 있어서 모든 조건부과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통한 수급권자 생존권 쟁취
- 장애인 이동권 · 교육권 · 노동권 보장 및 시설비리 척결
- 월드컵을 빌미로 한 철거민 · 영세노점상 탄압반대, 빈민생존권 보장
-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노동 · 거주의 자유 쟁취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 (1)

▶ 1. 우리는 왜 이 글을 긴급토론자료로 제출하는가

▶ 2. 민족민주전선의 세계성과 역사성

▶ 3. 민족민주전선의 3대 강령과 조직문제

4. 반제자주역량의 미군 철거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5. 민중적 민주역량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6. 민족민주전선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

7. 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 정권의 관계문제

8. 제안 - 6.15공동선언 1주년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자

1. 우리는 왜 이 글을 긴급 토론자료로 제출하는가

이 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 자성의 질문부터 던지려 한다.

민족민주전선의 지위, 역할, 임무,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올바르게 해설하는 제대로 된 논문이 한 편이라도 있는가? 민족민주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일군들은 자기의 학습과 사색에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민족민주전선 대오 안에서 생산적인 논쟁, 창조적인 토론이 널리 진행되고 있는가?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신 있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 힘들다는 데 오늘 민족민주전선이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학습과 사색이 없으면 이론이 정립될 수 없고, 이론이 없는 운동력은 좌우경적 편향에 빠진다. 그렇게 되면 결국 대오의 지도력과 결합력을 세울 수 없게 된다. 이론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사회역사의 진보와 변혁을 추구하려는 것은 마치 과학기술이론을 개발하지 않은 채로 산업생산력을 발전시키겠다고 헤덤비는 것처럼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사회역사를 진보와 변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조직적으로 단결된 민중의 투쟁력이지만 이론으로 무장하고 실천 속에서 단련된 지도일군들의 착실한 준비가 없으면 그 투쟁력은 잠재력으로 존재할 뿐 현실을 개변시키는 동력은 아직 아니다.

민족민주전선의 일군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분주하게 조직·정치사업을 전개하다보면 흔히 학습과 사색을 멀리하게 되는 상습이 생긴다. 이러한 상습이 몇 해 동안 되풀이되다보면 대오 안에서는 이론 없는 즉자적 행동만이 남는다. 바로 이것이 전선운동의 강화와 발전을 늦잡히는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다.

지금 상승기에 들어서야 할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대오 안에서 지도력과 결합력을 더욱 높여서 위력적인 투쟁력, 생활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조선반도의 정세가 격변하고 있는 오늘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높아지고 있으며 민족민주전선에 대한 요구와 기대도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 민족민주전선은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장애물에 얽혀있어서 전선운동의 동력을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진행로에 가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묘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민족민주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일군들이 학습, 사색, 토론을 통해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다.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것은 이론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완강한 실천력이 뒤따르고 권위 있는 지도력이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운동력의 수준은 곧 이론의 수준에 정비례한다.

우리는 이 글을 민족민주전선의 이론정립을 위하여 작성한 토론자료로 민족민주전선의 일군들 앞에 제출한다. 한 사람에게 집필을 맡겼지만, 집필의 전 과정에 우리 내부 안에서 오랫동안 검토와 토론을 거치며 다듬은 글임을 밝혀둔다.

2. 민족민주전선의 세계성과 역사성

19세기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까지 약 반세기 동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3개 대륙에서는 식민지 피압박 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 활화산처럼 분출되었다. 역사는 그 활화산을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식민지는 전근대적인 산업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아직 노동계급이 사회의 주도역량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따라서 민족해방운동의 주체는 처음부터 다양한 계급과 계층으로 구성된 식민지 민중으로 되었다.

3개 대륙의 식민지들에서 민족해방운동이 전개되는 것과 더불어 유럽에서는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며 광란하던 파시스트세력을 반대하는 유럽인민들의 반파시스트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반파시스트운동의 주체는 노동계급의 단독적 역량이 아니었고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위한 인민의 반파시스트 민주역량이었다. 역사는 반파시스트운동의 주체를 반파시스트 인민전선(Antifascist Peoples Front, APF)으로 기억하고 있다. 고전적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발달된 유럽나라들에서 사회의 진보와 변혁을 위해 앞장선 투쟁의 주체역량은 당연히 노동계급의 단독적인 역량이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광범위한 인민의 반파시스트 민주역량이었다는 사실은 오늘 민족민주전선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3개 대륙의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이 전개했던 반제투쟁은 유럽인민의 반파시스트 인민전선이 전개했던 반파시스트투쟁에 비할 바 없이 간고하고 기나긴 혈전이었다. 그러나 당시는 인류사회의 진보와 변혁이 최초의 사회주의 나라인 소련의 혁명역량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은 주변부의 사회변혁운동으로 인정되었고 세계사적 의의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은 3개 대륙의 민족해방운동과 유럽의 반파시스트운동을 이끌어 가는 유일한 영도역량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지도는 다시 그려졌다. 유럽의 반파시스트운동은 각 나라에서 정치세력화에 성공하여 집권하였고 그로써 반파시스트 인민전선은 전선의 깃발을 내리고 그 대신 집권세력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으며, 3개 대륙의 반제자주역량은 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NLF)의 깃발 아래 투쟁대오를 재편하였다. 3개 대륙의 반제자주역량은 민족해방전선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알제리,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는 자기들의 반제자주역량을 민족해방전선이라고 불렀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3개 대륙의 반제자주역량은 제국주의가 3개 대륙에 조성해놓은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 체제(neocolonialism)와 그 체제에 의한 지배·수탈을 반대·배격하는 자기들의 전선을 민족민주전선(National Democratic Front, NDF)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처럼 3개 대륙의 반제자주역량이 사회역사의 진보와 변혁을 위하여 피어린 투쟁하고 있을 때, 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세력이 패망하여 쫓겨나간 공백을 틈타서 들어온 제국주의세력은 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을 두 개로 쪼개놓고 조선반도 남측 지역의 반제자주역량을 고립·압살하려고 날뛰고 있었다. 제국주의세력이 분할·점령한 조선반도에서 반제자주역량은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저들의 고립·압살책동에 정면으로 맞서 싸웠으니, 역사는 그 투쟁의 주체를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남조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1946년 2월에 ≪북조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7월에 각각 결성되었다. 3개 대륙의 반제자주역량이 자기의 전선운동을 민족민주전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1970년대로부터 거의 한 세대가 앞선 1940년대 중반에 벌써 조선민족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라는 깃발을 펄럭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최전선의 불길을 헤쳐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남북(북남)으로 분리되어 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김일성**주석의 영도에 따라 1949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대회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으로 통합되었다. 여기에는 남북(북남)의 71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704명이 참석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개했던 조국광복회의 전선운동을 계승한 반미민족통일전선운동조직이다. 조국전선은 지금도 북측에 있다.

그러나 이 땅을 무자비하게 할퀴며 물어뜯고 있었던 제국주의세력의 잔혹성은 이를 데 없었으며, 둘로 갈라진 반제자주역량이 헤쳐가야 했던 고난과 시련의 길은 너무 멀었다. 1948년 8월부터 1949년 7월까지 남측에서 투옥된 인원은 15만4천여 명이었으며, 학살당한 인원은 9만3천여 명이었다. 1940년대 말부터 1953년까지 지속되었던 대량학살, 그리고 3년 전쟁의 참화 속에서 남측의 반제자주역량은 거의 맥이 끊기다시피 하였다. 반면에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은 사회주의 혁명역량으로 강화·발전되고 있었다. 전후 땅 속에서 가느다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남측의 반제자주역량의 일부는 3개 대륙의 반제자주역량이 민족민주전선이라는 새로운 깃발을 휘날리고 있었던 1970년대 말에 뒤늦게 민족해방전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섰으니, 그것이 ≪남조선 민족해방전선(남민전)≫이다. 그러나 취약했던 그 전선운동은 곧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모진 탄압으로 꺾이고 말았다. (1985년 7월에 ≪한국 민족민주전선(한민전)≫으로 개칭된 남측의 반제자주역량에 관한 서술은 지면 제약 상 다음 기회로 미룬다.)

3개 대륙의 반제자주역량이 1970년대에 이르러 자기의 전선을 민족해방전선에서 민족민주전선으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한 것은 반제투쟁과 더불어 제국주의세력이 자기의 하수인으로 등장시킨 예속정권을 반대·배격하는 투쟁에 나서야 했기 때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소비에트형 사회주의가 몰락했던 1990년대 초까지 반세기 동안 제국주의세력은 3개 대륙의 수 십억 민중에 대한 지배와 수탈을 자행하면서 자기를 반대·배격하는 반제자주역량을 탄압·말살하기 위하여 각 나라의 예속정권을 하수인으로 앞장세웠다. 그 예속정권들은 제국주의세력의 손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선발되고 육성된 파시스트세력이었으며 제국주의세력의 배후조종을 받는 반민족세력이었다. 쏘모사, 피노체트, 마르코스,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그 하수인들 가운데도 유달리 악명이 높았던 압제자들이다. 3개 대륙에서 제국주의세력의 손에 길들여진 예속정권들은 예외 없이 투옥, 고문, 학살을 자행하며 민족민주전선을 짓밟아보려고 날뛰었다.

민족민주전선이라는 깃발 아래 모여든 3개 대륙의 반제자주역량이 파시스트 예속정권의 모진 탄압에 맞서 자기를 지키며 헤쳐가야 했던 투쟁의 가시밭길. 그 혈전만리의

→

길에서 정확한 수는 헤아릴 길 없으나 수 백만 명의 이름 없는 영웅전사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감옥에서, 형장에서 목숨을 빼앗겼으며 밀림 속에, 도심지 길바닥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민족민주전선, 그 위대한 이름에는 제국주의의 지배와 수탈, 그리고 예속정권의 피묻은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해오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수 십억 민중이 흘린 순결한 피와 땀과 눈물이 스며있나니, 오늘 3개 대륙에 펄럭이고 있는 민족민주전선의 깃발 앞에서 우리는 옷깃을 여며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변혁세력들이 제국주의와 그 예속정권을 반대・배격하기 위하여 민족을 단위로 하는 반제자주역량(민족주체역량)을 반세기 동안 피땀 흘려 구축해온 전선운동의 총칭이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이르는 세계사의 숨막히는 격동기. 그 반역과 붕괴의 소용돌이 속에 소비에트형 사회주의가 휘말려들어 자기의 존재를 비극적으로 끝마치고 있을 때, 제국주의 광풍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구 전역을 강타하고 미증유의 혼란과 시련이 몰아쳤어도 3개 대륙의 민족민주전선은 깃발을 내리지 않았다. 아니 그 시련기를 헤쳐오면서 더욱 단련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지구 위에 제국주의의 지배와 수탈이 남아있는 한 사라질 수 없는 강인한 투쟁력과 생활력을 발휘하는 철의 존재임을 세계사에 뚜렷이 입증하였다.

이 땅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과 그 뒤를 이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이라는 이름의 전선운동조직이 건설된 때는 3개 대륙의 민족민주전선이 미증유의 혼란과 시련을 겪기 시작했던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였다. 이 청소한 전선운동조직들은 남측에서 전선운동의 기나긴 공백기를 접고 민족민주전선운동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그 동안 안팎에서 몰아닥친 여러 차례의 위기를 넘기며 전선운동의 대오를 지켜냈으며 올해로 10년의 연륜을 쌓았지만, 아직 남측 민중의 투쟁력 전체를 반제자주역량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 한계는 민족민주전선의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한시 바삐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사의 시제가 21세기로 바뀌어진 지금 제국주의의 지배와 수탈은 ≪세계화≫라는 교묘한 개념으로 포장되어 세계적 범위에서 매우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제국주의의 세계화 책동은 제국주의세력과 3개 대륙 민중의 모순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순이 심화되는 곳에서 그 모순을 극복하는 투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며 지금 3개 대륙의 민족민주전선은 자기의 투쟁력을 더욱 고양시키면서 사회역사변혁의 궤도 위에서 전진하고 있는 중이다.

제국주의가 지배와 수탈을 세계화하고 있는 오늘 세계적 범위에서 사회역사의 진보와 변혁을 추진하고 있는 반제자주화의 흐름은 크게 두 갈래로 흐르고 있다. 한 흐름은 제국주의세력의 집요한 고립・압살책동으로부터 ≪주체형의 새로운 사회주의≫를 수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도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 재생운동이며, 다른 흐름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3개 대륙에서 투쟁하고 있는 민족민주전선운동이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그러한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세계성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재생운동을 이끌어 가는 영도국이며,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3개 대륙의 민족민주전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반제자주역량의 최전방이다. 인류사회의 진보와 변혁을 추진하고 있는 반제자주화의 두 흐름은, 놀랍게도 조선반도 안에서 이처럼 하나의 흐름으로 합류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반도는 제국주의세력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전략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19세기말부터 제국주의의 지배와 수탈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아온 땅이다. 지금도 삼천리 강토와 7천만 민족은 제국주의의 분할・지배정책이 강요하고 있는 분단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지배와 수탈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아온 땅에서 제국주의를 반대・배격하는 반제자주화운동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진보적 인류의 21세기 운명은 조선민족의 반제자주화운동에서 개척되고 있으며 조선민족은 반제자주화운동의 선봉에 선 위대한 자주민족으로 일어서고 있다. 21세기의 사회역사를 진보와 변혁으로 이끌어 가는 반제자주화운동의 거대한 흐름은 조선반도에서 발원하여 지구 전역으로 굽이쳐 흐르고 있으며 진보적 인류의 반제자주역량은 그 동력의 중심축을 동방의 자주민족에게서 발견하였다.

3. 민족민주전선의 3대 강령과 조직문제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강령은 자주・민주・통일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민족민주전선들은 자주강령과 민주강령을 자기의 2대 강령으로 삼고 있는데 비해,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제3의 강령, 통일강령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단순히 첨가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다른 나라 민족민주전선과 달리 ≪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나라 민족민주전선에 비하여 더욱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의 길을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3대 강령을 상호연관성의 측면에서 풀이하면, 자주강령과 민주강령은 각각 통일강령과 뗄 수 없는 관계로 결합되어 있음이 밝혀진다. 이것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자주위업과 민주위업을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투쟁 속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말이며, 자주위업과 민주위업을 실현하지 못하면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할 수 없다는 말이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자주・민주・통일 3대 강령을 구현하려는 여러 사회운동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결합한 전선이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3대 강령을 구현하기 위한 전선이므로, 3대 강령을 따르지 않는 세력은 민족민주전선에 결합될 수 없다. 민족민주전선이 강령의 일치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공고한 조직적 결합력을 보장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동력은 남측에서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단결된 민중에게서 나온다. 정치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고 조직적으로 단결되지 못한 민중 일반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동력을 제공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단결된 민중은 민족민주전선의 기치를 따라 전진하며 투쟁한다. 바로 이 투쟁력이 남측 사회의 진보와 변혁을 추동하는 주력이다.

민족민주전선의 기치 아래 단결하여 투쟁하는 민중의 요구와 이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민족적 요구와 이익이고 다른 하나는 계급적 요구와 이익이다. 민족적 요구와 이익은 민족 전체의 요구와 이익인데, 지금 남측에서 민족 전체의 요구와 이익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앞장서서 투쟁하고 있는 사회집단은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단결된 민중이다. 그러므로 남측에서 민족적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는 주체로 존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단결된 민중이며, 민족민주전선은 그러한 민중의 민족적 요구와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게 된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민족민주전선의 3대 강령은 민중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민중의 민족적 요구와 이익을 반영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것을 내포하되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민족민주전선이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데 이것은 자주강령을 위한 투쟁이며 동시에 민주강령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고 박탈하고 있는 주범은 외래 독점자본과 그것에게 끌려가고 있는 남측의 부르주아 정권과 독점자본이다. 민중 생존권 투쟁은 외래 독점자본의 경제침략을 반대하고 남측의 부르주아 정권과 독점자본의 계급적 지배와 수탈을 반대하는 투쟁이므로 민중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투쟁이지만, 민족민주전선은 민중 생존권 쟁취 투쟁에 앞장서되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하는 과업을 자기의 강령으로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자주강령과 민주강령에 포함시켜 수행하게 된다. 이것이 ≪내포≫의 의미다.

민족민주전선이 전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도 마찬가지로 민중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투쟁이 아니라, 민중의 민족적 요구와 이익을 반영한 투쟁이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은 민주강령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며 동시에 통일강령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은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또는 민중적 민주주의라고도 부른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반민주 악법이므로 철폐되어야 하며, 또한 연방제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반통일 악법이므로 철폐되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의 민주강령은 일반 민주주의(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넘어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령이다.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일반 민주주의를 넘어선 민중적 민주주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중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아직 아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완전히 철폐되어 민중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이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제도를 뜻하는 개념이다.)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된 뒤에도 민중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근본적 변혁≫은 수행해야 할 새로운 과업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국가보안법은 민중의 계급적 요구를 짓밟고 계급적 이익을 박탈하는 데 동원되는 악법이다. 그렇지만 민족민주전선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목표를 민중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계급적 자주성을 완성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중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민족민주전선의 반제자주역량은 민족적 관점을 앞세우면서 자기 안에 계급적 관점을 내포해야 한다. 민족적 관점만 지니고 계급적 관점을 포기하면 우경적 편향에 빠지고, 그 반대가 되면 좌경적 편향에 빠진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3대 강령을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민족자주성의 완전 실현과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연방제 통일 실현이다. 3대 강령 가운데서 자주강령과 민주강령은 남측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과업으로 실현될 것이다. 남측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그것은 곧 민족자주위업이 실현되는 것이며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또한 자주적 민주정부는 북측 정부와 힘을 합쳐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는 주체의 한쪽이기도 하다. 물론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도 연방제 통일은 낮은 단계에서 실현되겠지만, 자주적 민주정부는 연방제 통일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 완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의 전략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 실현이다. 민족민주전선의 당면정세 속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은 미군 철거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그리고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 이 3대 과업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역통일전선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따로 설명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3개 대륙에서 전개되고 있는 민족민주전선조직의 조직화 수준과 방식은 민족민주전선조직이 존재하고 있는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파시스트적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나라의 경우, 민족민주전선은 비합법조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반합법조직으로 존재하고 있다. 남측에서 파시스트적 탄압이 자행되었던 1970년대와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남측 민족민주전선도 다른 나라에서처럼 비합법조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2001년에 들어선 오늘의 남측 사회는 지난 시기와 같은 파시스트적 탄압이 지속될 수 없는 정세로 일정하게 개변・완화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체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거나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국가보안법 체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남측에서 민족민주전선은 합법조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반합법조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사회역사의 진보와 변혁을 지향하는 운동력이 언제 어디서나 합법조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합법주의적 편향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국가보안법 체제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반합법조직으로 존재해야 한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반합법조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말은 그 조직이 합법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대중단체들을 통일전선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과 임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내일 계속)

대표집필자 최성원
2001년 11월 6일